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로만케톨릭이 형식과 외수에 매여 걸림과 나고 있을 때 젊은 믿음의 사람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받아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어 오늘의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Sole Fide) 오직 은혜(Sole Gratia)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개혁주의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헌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10월 25일 (토) 제 150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그 기준은 성경!

종교개혁주일 497주년 맞아 철저한 자기점검으로 개혁의 주체돼야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로마가톨릭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내걸었다. 이로써 종교개혁의 불씨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약 5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모든 교회는 개혁주의의 후예로 종교개혁을 교회력으로 삼고 그 의미를 기념하고 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 개혁이란 제도 몇 가지를 바꾸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고 찾는 것을 뜻한다. 루터가 주장한 것처럼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성

경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음부의 문화에 함몰되지 않으며 오히려 거룩함으로 세상의 문화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 21세기 우리가 완성해 가야 할 종교개혁이다.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다고 한다. 그 타락은 바로 교회의 주역인 목회자와 교인들의 타락이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세상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해 와서 오히려 교회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뤄야 할 종교개혁은 제도적인 수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기념이란 뜻 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지나간 옛 일의 회상과 추억으로 남겨진 과거인가 아니면 오늘도 계속돼야 하는 현재형인가. 분명한 것은 교회의 개혁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쉬지 않고 이뤄가야 할 교회의 성화과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개혁의 자세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497년 전 있었던 종교개혁을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 치부하며 그 사건을 한번 회상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오늘의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한다. 중세 교회에 개혁 대상이었던 잘못된 신학사상이 있었듯 오늘날 교회 내에는 성경에서 떠난 잘못된 사상들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제일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이다. 즉 기독교 구원의 절대성을 버리고 모든 종교는 동일한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릇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정체되면 부패되기 때문이다.

사상이다. 그 외에 잘못된 성경관과 교회 본질에서 떠난 목회다. 이와 더불어 교회공동체가 개혁해야 할 중대한 문제는 교회의 세

속화와 윤리적 타락이다. 오늘날의 교회가 심각한 윤리적 타락상을 보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3면으로 계속)

X세대, 부모보다 더 가난하다!

퓨리서치, '학자금 대출 등 부채비율 높고 불황 중 취업' 기현상 분석

베이비부머세대가 물러난 미국의 주 소비시장은 'X세대'가 대신 차지하고 있다. 소비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현장에서 이들은 열심히 뛰고 있다. 지난 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폴 라이언이 바로 X세대의 선두 주자다.

보통 'X세대'는 1965-1980년생을 지칭한다. 미국 경제 붐을 일으켰던 클린턴 행정부 시절 직업시장에 뛰어 들었지만 9.11의 아픔을 겪었고 대공황의 쓴맛을 보고

있는 세대다. 이들은 부모 세대가 같은 연령대였을 때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 하지만 모아놓은 재산은 크게 부족하다. 퓨리서치는 최근 X세대가 안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을 조사해 발표했다(Generation Xers Are Poorer Than Their Parents, Could Be First In Recent History To Fall Behind).

퓨리서치 조사결과를 통해 이들의 성향을 잘 이해하면 전도와 목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균적인 X세대가 모은 재산은 어림잡아 2만9100달러인 반면 같은 연령의 부모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 규모는 6만5200달러였다. 재산에는 저축, 은퇴기금, 주택과 기타 투자금이 포함된다. 주택 지분을 제외할 경우 전형적인 X세대의 재산은 1만3000달러 안팎이다. 반면 X세대의 일반적인 부모가 같은 나이에 모아놓은 재산은 1만8000달러 선이었다.

"모아놓은 재산 측면에서 X세대는 근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전 세대에게 뒤떨어지는 추세를 따르는 중이다. 비록 재산은 경제안정 특히 은퇴준비의 주요 지표다"라고 퓨의 금융안정 및 이동성 연구 책임자인 다이애나 엘리엇트는 분석했다.

X세대 중 4분의 3은 부모 세대가 같은 나이였을 때보다 가계 소득이 더 많다. 하지만 부모세대보다 가계재산이 많은 X세대 비율은 36%에 지나지 않는다.



X세대는 소득은 많지만 학자금 융자 등 부채가 많아 부모세대보다 더 가난하다.

한 가지 원인은 바로 부채 비율이다. X세대의 부채액은 부모세대보다 6배 가까이 많다. 거의 모든 X세대가 학자금 대출, 의료비, 신용카드 또는 기타 부채를 안고 있다고 답했다. 부채의 중간 값이 7000달러를 웃돈다. X세대의 부모가 인생의 똑같은 단계에 진 빛은 1000달러 안팎이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은 대불황 직후 급증했다. 금융당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총 1조 달러를 웃돈다. 신용카드 부채와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유형의 부채는 모두 같은 기간 동안 감소했다. X세대 중 다수가 매달 학자금 융자 상환의 부담 때문에 비상금 및 은퇴자금 저축과 주택 구입을 뒤로 미뤘다. X세대의 재산형성이 더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들 세대가 2008-2009년 불황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어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날렸다는 사실이다.

또한 다수가 불황 중인 1990년대 초에 취업했다. 그리고 재산이 모이기 시작하는 시점인 2000년대 초에 또 다른 불황을 맞았다. 그 뒤 2000년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자 많은 X세대가 집을 장만했다. 하지만 2008-2009년 집값 폭락과동을 겪었다. 35-44세 그룹이 받은 모기지 중양값은 1995-2007년 54% 늘어났다. 반면 집값은 5분의 1이나 떨어졌다.

가계자산이 부모를 능가하는 X세대는 전형적인 X세대보다 평균 3배가량 재산이 많다. (3면으로 계속)



2면

부자 살펴보면 그 나라 경제 상황 알 수 있다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삼정성구 박사(ICSK원장)



16면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1) 노봉린 박사



16면

인터뷰 Renua Medical 강익호 장로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제7회 정기연주회



단장 주재임 목사



지휘 전중재 교수



반주 헬렌박

특별출연

헤세드남성중창단 (세례토스장로교회)



목사:박규성 지휘:성외정 반주:김경아

에버그린여성합창단



단장:정영숙 지휘:노혜숙 반주:고강희

Piano 독주



Benjamin Beckman

2014년 11월 2일 (주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 (323)931-1087

4350 Wilshire Blvd., LA, CA 90010

문의: 주재임 목사 (213.219.1187) | 무료입장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www.pecpc.com



시론

사슴나무골에서(10): 목회자와 은퇴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목회자마다 소속된 교단이 다르고, 교단의 헌법과 교회의 정관이 달라서 목회자의 은퇴 연령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65세에서 75세까지를 목회자의 정년으로 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퇴 연령은 적어도 30여년에서 50여년 전에 작성된 교단 헌법들이나 교회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은 21세기에는 한번쯤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진부한 규정이란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목회 시작 연령에 따라 20-30년의 왕성한 사역을 하고 이제 인격적으로나 목회 경력에서나 가장 바람직한 목회자로 활동할 시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은퇴함으로써 야기되는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새로 청빙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광고를 보면 연령이 언급되어있는 바, 심지어 40세를 넘지 않는 담임목회자를 찾겠다는 광고가 눈에 띄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젊어도 45세에서 50세를 넘지 않습니다. 50세 중반이나 60세 중반을 넘긴 목회자로서는 풀타임으로 섬길 수 있는 사역직의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목사로서 사역 경험을 조금 쌓은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준비된 훌륭한 목회자가 물론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목회 현실은 대형교회에서 부교역자로서 배운 상식과 이론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목회 현장의 높은 벽과 장애물들로 가득차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담임목회자로 섬겨온 지역에도 60대 초 중반에 은퇴하신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출타하거나 특별한 집회 때마다 초청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부탁하곤 했습니다. 은퇴 목회자들은 출석할 교회가 없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자발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해외 선교지로 나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에 선교지의 삶은 큰 위기와 부담으로 변할 수도 있기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택이 교회개척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개척 참여 교인이 없이 목회자 부부만으로 시작하신다면, 그것도 미주 지역에서 개척을 하시는 경우는 여러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90퍼센트 가까이 3년 안에 교회 문을 닫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많은 이민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조기 은퇴하거나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는 목회자들의 여생을 돌봐드릴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안은 목회자들 스스로가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언제 고갈될 지 모르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에만 의지해서도 안됩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일하는 자원봉사사역부터 시작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간단한 직업교육도 받아서 취업의 문도 두드려 보시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들도 경륜이 많은 60대 목회자들을 청빙해서 5년-10년 정도의 마지막 목회사역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회와 목회자들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퇴연령을 정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주님께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자 살펴보면 그 나라 경제 상황 알 수 있다

WSJ, 포브스 '2014 세계 억만장자 명단분석 통해 해당 국가경제 건전성 분석 보도

지구촌에는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억만장자의 동향에 관한 자국적인 새 보고서가 등장한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억만장자 통계', 중국의 '후룬 보고서', RBC웰스매니지먼트의 '세계 부자 보고서'가 그에 해당된다. 억만장자의 수에 따라 부자 명단의 명성도 덩달아 올라간다. 이 같은 부자 보고서의 대부 격인 포브스가 해마다 선정한 억만장자의 수는 1,645명으로, 8년 새 두 배로 늘어났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리 만족감을 주는 것 이외에도, 억만장자에 관한 일부 자료는 심각한 경제 논의를 휘말리고 있다. 최근 벌어진 논쟁에서 저자이자 벤처캐피털리스트이며 공교롭게도 억만장자인 피터 티엘(페이팔 공동창업주)은 미국의 주요 IT 억

만장자 중에서 '낮익은 얼굴들'이 많이 나타난 점을 예로 들며 혁신이 정제된 징후라고 지적했다. 미 재무장관을 역임한 래리 서머스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억만장자 명단에 오른 인물들이 상당히 바뀌었다는 사실이 미국에서 부의 상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언급했다(1982년 명단에 오른 인물 중 2012년 리스트에도 포함된 이들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억만장자 명단 분석을 통해 한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빠르게 가능해볼 수 있다고 보도한다(The Billionaire Guide to World Growth: Rankings of the wealthy are fun to read, but how the rich prospered can tell us much about a country's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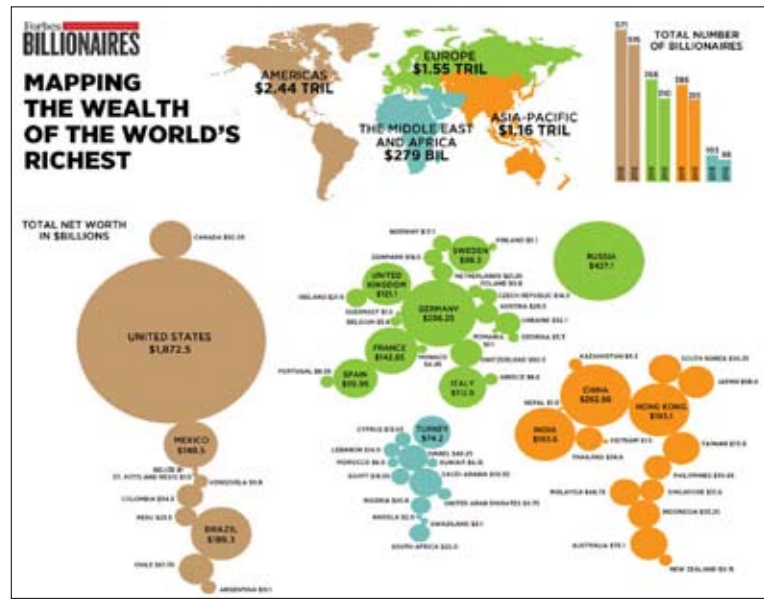
에 몸담고 있다. 현재 자국의 IT부문을 육성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관심이 공산당의 통제 본능을 능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심지어 보다 경제가 정제된 국가에까지 파급돼왔다. 지난 10년 동안 인도인들은 정치적 연줄이 있는 지방 거물들의 파워가 커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그 같은 거물이 바람직한 신흥 부호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듯 하다. '2014 억만장자 명단'에 오른 인도 억만장자 55명 중 17명은 201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이들이다. 이들 신흥 부호 중 14명은 제약, 교육, 소비재와 같은 생산적인 산업에서 배출됐다.

심지어 원자재 기반의 경제가 둔화세를 보이고 정부의 개입 성향이 있는 브라질에서도 기업가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다.

신흥 부자가 '2013 억만장자 명단'의 57%를 차지했고, 소비재와 미디어 부문과 같은 산업에서 배출된 바람직한 억만장자가 총 억만장자 부의 90% 이상을 나타내, 한국(97%)을 제외하고 신흥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러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재산이



모든 억만장자들은 각각 다른 경로로 재산을 일군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국가에서 억만장자들이 탄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들이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지 않는 한 정제된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화되지 않는다. 이들 억만장자는 정치적 연줄을 이용하기보다는 '혁신형' 산업을 통해 탄생한다. 어떤 국가가 균형 잡힌 방식으로 부를 창출하는지를 가능하게 위해, 포브스의 2014 억만장자 리스트(The Richest People On The Planet 2014)를 활용해볼 수 있다.

이 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 경제규모

IT 억만장자 중 '낮익은 얼굴' 많이 나타난 건 혁신 정제 징후, 말, 일은 더 부정적, 브, 인, 미는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여

대비 억만장자의 부, 신흥 억만장자 vs 기존 억만장자, IT, 제조업과 같은 생산적인 산업에서 배출된 바람직한 억만장자의 수 vs 원자재, 부동산과 같이 부패하는 경향이 빈번한 산업에서 탄생한 억만장자의 수 등등.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볼 때 미국은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한동안 억만장자의 재산이 평균적으로 세계 GDP의 약 10%를 차지했고, 미국의 경우도 글로벌 평균치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오늘날에는 IT와 같은 혁신형 산업에서 신흥 갑부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시장의 동향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닷컴 붐'이 절정에 달했던 2000년에는 IT 억만장자 대비 원자재 산업의 억만장자 수가 3대1의 비율로, IT형 부자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다음 10년간 IT 억만장자의 수가 하락했다가 2011년 이후 회복세를 보였다. 원유와 같은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반면, IT기업의 주가는 급등했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미국의 IT 억만장자가 63명을 기록했던 반면, 에너지 부문의 억만장자 수는 33명이었다.

티엘이 불만을 토로한대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운 빌 게이츠,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스와 같은 거대 억만장자들이 억만장자 명단의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낮익은 얼굴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것처럼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미국의 여타 IT 억만장자 중 야후 공동 창업자인 제리 양과 넷스케이프를 공동 설립한 짐 클라크와 같이 1990년대의 유명 기업과 연계된 이들 다수의 순위는 하락하고 있다. 반면, '트위터'를 창업한 잭 도시와 왓츠앱 공동 창업자 잔 코코와 같이 인기 있는 모바일 인터넷 앱과 연관된 많은 이들은 부자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세계적으로도 이 같은 억만장자의 수가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듯 하다. 3년 전만 해도 세계 2위

의 경제 대국인 중국에서 재산이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거물들이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이는 공산당의 패권에 도전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지닌 부호의 부상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취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중국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부호는 6명이고, 그 중 3명은 15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잭 마 회장을 선두로 한 이 3명의 억만장자는 인터넷 기업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글로벌 평균의 2배인 약 20%로 나타났다. 러시아 억만장자가 보유한 재산의 80% 이상이 정부가 통제하는 원유, 가스 같은 산업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느 선진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억만장자의 부가 글로벌 평균치에 머물거나 그보다 낮으면 보통 경제가 건강하다는 신호이다.

(3편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notice about the magazine's publication schedule.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a background image of a campus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It lists degree programs (ESL, Bachelor, Master, Doctoral) and study options (On Campus, Online, Blended).

X세대, 부모보다 더 가난하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X세대 중 절반가량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형적인 백인 X세대는 흑인 X세대에 비해 가계소득이 1만 8000달러 가량 많고 주택지분을 제외한 재산은 4배를 넘는다. 대학 교육을 받은 X세대는 부모보

다 못한 동년배 그룹에 비해 오히려 낮다. 대졸 X세대의 82%가 부모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지만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는 비율은 30%에 그친다. 그러나 고졸 이하 X세대의 경우엔 70%가 부모보다 소득이 높지만 재산이 더 많은 비율은 절반 가량이라고 류가 밝혔다. 이는 대졸 X세대가 더 부유한 가정 출신이며 고졸 이하 X세대보다 빛이 더 많을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대졸 X세대의 연봉은 고졸 이하 동년배 세대보다 2만5000달러 가량 더 높다. 소유주택 지분이 2만6000달러 높으며 재산은 9000달러 많다.

다 못한 동년배 그룹에 비해 오히려 낮다. 대졸 X세대의 82%가 부모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지만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는 비율은 30%에 그친다. 그러나 고졸 이하 X세대의 경우엔 70%가 부모보다 소득이 높지만 재산이 더 많은 비율은 절반 가량이라고 류가 밝혔다. 이는 대졸 X세대가 더 부유한 가정 출신이며 고졸 이하 X세대보다 빛이 더 많을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대졸 X세대의 연봉은 고졸 이하 동년배 세대보다 2만5000달러 가량 더 높다. 소유주택 지분이 2만6000달러 높으며 재산은 9000달러 많다.

는 아직 자녀가 없는 것으로 CTI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는 부머세대의 25%보다 높은 수치다. 또 근무시간도 늘어났고 불경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장된 데다가 여성 참여의 사회적 분위기 변화도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X세대의 전반적인 비관적 태도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매지드 여소시에이츠의 최근 설문 결과, X세대 부모와 부머 세대에서

년대 일명 '헬리콥터' 세대에서 성장했던 X세대들이 요즘은 최첨단 장비들을 동원해 자녀들이 행방을 감시할 정도로 매우 공격적인 자녀양육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X세대는 이전 베이비부머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경험, 문화적 감각을 갖춘 이들이다. 1965년 이후 출생한 이들은 미국의 경제적 팽창이 서서히 흔들리는 시기에 성장했으며, 냉전을 겪었다. 또한 그들 중 상당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모들이 성혁명의 풍토 안에서 자유롭게 결혼과 이혼을 넘나드는 동안, 외롭고 표류하는 어린 시절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감을 안고 자라게 된다. 이러한 공통 경험은 수많은 X세대에게 '불안'이라는 공통 코드를 각인시켜 주었고, 이는 그들의 삶을 위한 보다 견고한 증거들이 될 수 있는 공동체와 전통을 열망하게 만들었다.

또한 부모 세대보다 열심히 일하고 벌고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는 있지만, 부채 비율이 너무 많아 가난하다.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은퇴 준비도 전한 못하면서 사회를 비관적으로 관망하고 있다.

결국 이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X세대의 고유한 인생 탐구 여정을 담을 수 있는 교회의 구조와 영적 경험이다. 교회가 이들의 아픔과 기대를 담을 수 있는 진정한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때, 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지도자

네델란드 사람들은 맨주먹으로 물구멍을 막아 나라를 구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픽션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한 소년의 구국영화가 전설이라고 해도 감동적인 이야기임에는 틀림없다. 그런 전설은 많을수록 손해될 것이 없다.

우리 시대는 자칭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게다가 자칭 차세대 지도자라며 자신을 치켜세우는 해프닝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지도자란 글자 그대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 지도자란 스스로 되는 경우보다는 시대와 역사가 그를 치켜세워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지도자는 맨주먹으로 물구멍을 막아 조국을 구했다던 바로 그 소년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도자요'라고 나서서 사람들이 민족역사의 주인공으로 행세한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놀이터를 제공하고 사랑방을 내준다면 우리네 역사의 전도는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

존 스토틀(John Stott)는 기독교 리더십의 특징을 비전, 근면, 준비, 인내, 섬김, 훈련이라고 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 지도자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삶을 얼마나 구현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된다. 이 대목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숙연한 자세로 자신을 보게 된다. 이유는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치졸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서로를 가리켜 당신이 '지도자요'라고 치켜세운다든지 할수록 더 '내가 지도자다'라고 나서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도자를 세워야 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 정신도 지니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도자로서는 부적합하다.

자신이 공인한 말은 책임을 지는 사람, 근거 없는 말을 꾸며대지 않는 사람, 덕을 깨뜨리는 말을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적합하다. 자신이 내뱉은 말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할량 미달이다. 붓꽃처럼 터져버린 선기 공약들, 그리고 선신 공약들도 예외가 아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말이 아니다.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은 남북분단으로 모자라 손바닥만한 강토와 국민을 조각조각 나누고 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더욱 한심스런 작태는 교계의 풍토다. 한 술 더 뜨기에 손발이 빠르다.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 연합과 일치도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의 통일 기도와 몸짓이 처량하기 그지 없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새삼 다가온다.

X세대 아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현실" 파악하는 진정성 있는 교회공동체로 다가서야

다 재산이 많은 비율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동년배 그룹에 비해 오히려 낮다. 대졸 X세대의 82%가 부모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지만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는 비율은 30%에 그친다. 그러나 고졸 이하 X세대의 경우엔 70%가 부모보다 소득이 높지만 재산이 더 많은 비율은 절반 가량이라고 류가 밝혔다. 이는 대졸 X세대가 더 부유한 가정 출신이며 고졸 이하 X세대보다 빛이 더 많을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대졸 X세대의 연봉은 고졸 이하 동년배 세대보다 2만5000달러 가량 더 높다. 소유주택 지분이 2만6000달러 높으며 재산은 9000달러 많다.

수입이 적다. 이는 베이비부머 남성의 14%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들이 서비스 관련 직업에 더 많이 종사해 불경기를 지나면서도 직장을 잃는 비율이 더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불경기 중 남성 대 여성의 실직 비율이 2.6대1로 나타났다고 노동부가 보고했다.

특히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자녀수가 적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많은 여성들이 자녀출산을 미루거나 자녀를 부부와 공동으로 돌보는 경향이 강하다. 화이트 칼라 대졸 여성의 43%

태어난 1996년 이후 자녀들의 상당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따라 자녀들의 태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X세대 부모의 자녀들은 34%가 독립성이라고 밝힌데 반해 부머 세대 부모의 자녀는 44%나 그렇다고 답했다. 또 X세대 부모의 자녀들의 19%가 '존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부머세대 자녀는 무려 44%나 '존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양 세대 자녀의 69%는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1970년대와 1980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그 기준은 성경!

(1면에서 계속)

교인들의 비윤리적 행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목회자의 윤리적 타락이라고 생각한다. 교회 개혁은 그 대상이 목회자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개혁을 시작해야 할 주체 또한 목회자다.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다.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며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교회의 위기는 목회자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의 위기는 무엇인가. 먼저는 소명감 상실이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거룩성 상실이다. 교회는 거룩한 공회이며 목회자의 삶은 거룩성이 요구된다.

종교개혁은 철저한 자기점검을 통해 일어났고 오염된 교회에 임할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성경에서 이탈된 교회들이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자신을 혹독하게 단련해야 한다. 교회가 자기비판에 소홀하거나 거부하면 교회는 약화되고 부패하며 세상을 변혁시키기보다는

오려려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된다.

개혁된 교회일지라도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 되며 그 가능자는 성경말씀이다. 말씀의 거울로 투영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것과 개혁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나아가 갈 방향과 목표는 무엇인지를 주밀하게 살피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대 문호였던 괴테는 1831년에 쓴 글에서, 종교개혁이 얼마나 유럽 문명의 형성과 발전을 주어 세롭게 발돋움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다.

"우리는 루터와 종교개혁에 대해

전적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편협함의 사슬에서 자유케 됐고, 우리의 근원으로 되돌아 갈 수 있게 됐으며, 기독교라는 그 순수함 속에서 모든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발을 확고하게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인간 본성 안에서 스스로를 늘 갈 수 있는 용기를 다시 갖게 됐습니다."

(편집부)

부자 살펴보면 그 나라 경제 상황 알 수 있다

(2면에서 계속)

그러나 일본과 같이 GDP 대비 억만장자의 부(2% 미만)가 이례적으로 낮을 경우,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부 창출능력이 만성적으로 결여되었음을 나타내는 증상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글로벌 동향은 결코 단색적이거나 단순하지 않다. 선진국의 억만장자 일가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보다 부유할 것이

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처럼 정형화된 양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수의 신흥국들은 구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부를 두둑이 갖추고 있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일본의 경우, 대체로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상속형 억만장자가 전체 억만장자 재산의 12%, 독일의 경우, 76% 정도를 차지했다. 신흥국에서 상속형 억만장자의 비중은 러시아, 중국의 경우 거의 '제로', 한국의

경우 84%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속형 부가 독일, 한국 경제에 유해한지는 확실치 않다. 이들 국가에서는 억만장자 일가가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축에 속하는 기업 일부를 지배하고 있다. 또 상속형 부가 없다는 점이 러시아에 반드시 '플러스 요인'이 되지도 않는다. 정치적 연줄이 끈끈한 권력형 과두제별이 상속형 억만장자를 대체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억만장자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관음증적인 재미를 주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를 통해 국

가 경제가 미래의 성장에 보탬이 되는 생산적인 부와 부유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가능해할 수 있는 해안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억만장자의 추세는 러시아, 말레이시아,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고 있고, 브라질, 인도, 미국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자 루치르 샤프마(RUCHIR SHARMA)는 모건스탠리자산운용 신흥시장 총괄 대표이자,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의 저자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On Campus Courses

2014 가을학기 수업 안내

Sept 29-Oct 3(9월 29 -10 월3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6-10 (10월 6-10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 / 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 디자인)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인생은 선택이다

서울에 사는 한 젊은 부부가 오랜만에 외식을 하게 됐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의 집 셋방살이를 전전하면서 고생하던 설움을 끝내고 오랫동안 저축했던 돈을 이제 찾아서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그 자기 집을 장만하려고 맛있는 음식도 사먹지 못했다. 자녀들도 새 옷은 생각도 못하고 항상 남에게 얻어 입혀온 것이다. 그런데 드디어 어디로 이사를 가야할 건지 의논하기 위해서 외식을 하게 된

것이다. 드디어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음식을 먹으면서 부부는 먼저 서로의 고생을 격려한다. '당신이 수고했어. 힘들었지. 많이 먹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즐겁게 식사를 마쳤다. 이제 디저트를 먹으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구입할 집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 시작한다. 아내가 먼저 '여보! 당신, 우리 깨끗하게 단장된 아파트로 들어가면 어떨까?' 그러자 남편이 '그런데 말이야! 당신 우리 어머니가 계시잖아, 어머니

을 생각하면 얼마당이 좀 있는 단독 주택이 어떨까? 그런데 계속해서 한참을 얘기하는데도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급기야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하고 점점 언성이 높아지니까 해선 안 될 말까지 쏟아놓게 되었다. 남편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자 부인도 당신만 고생한 줄 아냐? 내가 얼마나 아끼고 알뜰하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서로가 자신이 고생한 것만 내세우며 얼굴색까지 변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먼저 화가 폭발한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음식 값을 지불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런데 씩씩거리고 집으로 되돌아왔는데도 이제껏 자신이 고생해왔던 것을 아내가 그렇게 몰라주는 것이 너무나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휘발유통을 들어 집에 불고는 불을 질러버렸다. 그런데 방에 노모와 어린 딸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정신없이 불길을 피해서 집을 뛰어나온 뒤에서야 생각난 것이다.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순식간에 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방화와 살인죄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부인은 하루 저녁에 남편과 가족 그리고 집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게 되었다. 이것이 10여 년 전에 서울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그 분이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인데 예수님을 선택하면 흥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로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려고 세움받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면 흥하게 되는 인생을 살 것 이라는 말씀이다. 돈 다 잘 모았고 서로 고생도 했고 정말 애썼다. 그러나 잘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과 그 집이 인생의 주제가 되면, 그 돈과 그 집이 인생의 목

표가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 자리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래서 당신 우리도 참 많이 고생했지만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 하고 먼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감사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싸움 일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잘되는 것, 내 성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내가 영광을 얻는데 그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선택하면 그 때는 우리를 위하여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으시고 도우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피곤한 것이 내가 잘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역이 잘되고 사역의 성공을 선택해서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사실이다. 내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의 길이 무엇인가? 먼저 예수 선택하는 그것이다. 그동안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성공을 먼저 생각했던 생각이 잘못을 시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고 내가 잘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역이 잘되고 사역의 성공을 선택해서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푸 / 른 / 초 / 장

김풍운 목사
(벽스카운티장로교회)



싱그런 열매를 보며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창조주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 드리는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을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는 말씀에 두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도가 있는가 하면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 같은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도 있음을 봅니다.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인생의 참된 가치는 그 사람의 외적인 업적

와 포도를 가시나무와 찔레에 대조시키신 것은 가시나무와 찔레를 못된 나무로 비유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 절에서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45절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라고 말씀을 마무리 하십니다. 앞의 두 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모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데 못된 나무에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본 절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나무의 열매를 사람의 말과 연관 짓고 계시는바 그것은 나무의 좋고 나쁨은 각각 그 열매로 안다면

과 같이 선한 말을 하면 그는 좋은 사람이므로 그런 말을 하고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적용2.** 예수님의 밝음을 우리 안에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밝은 말을 하기를 힘쓰십시오.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말이 나오고 마음이 밝으면 밝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천국의 밝은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밝은 마음이 채워지면 절로 밝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기하는 말, 불만스러운 말, 다투는 말, 교만한 말, 부정적인 말과 같이 어두운 말을 주로하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지금 어둡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화목을 도모하는 말, 겸손하고 온유한 말, 긍정적인 말을 주로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밝은 마음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보지만 하여도 사치만 보이도 아니 생각만 하여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 반대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 보시기에 그리고 말씀을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열매를 맺은 좋은 나무 같을까, 아니면 못된 열매를 맺은 못된 나무와 같을까에 대하여 우리들의 속사람을 면밀히 살피며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설교, 기도, 찬양, 성경공부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하고 밝은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눅6:43-45)

1. 나무의 좋고 나쁨이 열매에 달려있다.

43절에서 예수님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나쁜 열매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요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못된 나무라는 뜻입니다. 과수원에 심긴 포도나무 중에 어떤 나무는 좋은 포도를 맺고 또 어떤 나무는 못된 포도를 맺었다면 그 열매로 보아 좋은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말씀이지요.

보다도 속사람이 성숙하여 생긴 열매인 것입니다. 잠시 모든 일을 멈추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그것은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는 포도를 딸 수 없음같이 못된 나무에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가시나무가 함께 있는 곳과 찔레와 포도나무가 함께 있는 모습을 가리키시며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가시나무와 무화과나무, 찔레와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 섞여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교회를 가리키실 때 가시나무나 찔레가 아니라 무화과나 포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각각 그가 하는 말을 들어 보면 좋은 사람인지 못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았기 때문이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악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한 사람의 말이 선하고 악한 것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심고 기른 선과 악의 열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를 말씀하시기 전에 41-42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

적용1. 예수님의 선하심을 우리 안에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선한 말을 하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님의 선으로 채우는 작업이 우선되고 중시되어야 합니다. 오래 믿었더라도, 중직자라도 누구든지 입에서 남을 죽이는 말, 찌르는 말, 저주하는 말, 더러운 말과 같이 악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초신자라도 남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축복하는 말, 깨끗한 말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보지만 하여도 사치만 보이도 아니 생각만 하여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 반대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 보시기에 그리고 말씀을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열매를 맺은 좋은 나무 같을까, 아니면 못된 열매를 맺은 못된 나무와 같을까에 대하여 우리들의 속사람을 면밀히 살피며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설교, 기도, 찬양, 성경공부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하고 밝은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은 포도원에 심겨서 같은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같은 돌봄을 받으며 자랐음에도 어떤 포도나무의 열매는 좋고 또 어떤 포도나무의 열매는 나쁘다면, 주님의 동산에 심겨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과 생명의 단비를 받으며 우리들의 포도원지가 되신 주님의 같은 돌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같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2.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44절에서 예수님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43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요 못된 열매를 맺으면 못된 나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본 절에서 가시나무와 무화과, 찔레와 포도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시나무와 찔레는 가시가 있는 식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열매를 의미하는 무화과

3. 나무의 좋고 나쁨을 열매를 보고 안다면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Southern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남부개혁신학대학원

엘에이 캠퍼스

목회학D. Min, 선교학D. Miss, 문화교류학D. Ics, 박사과정

2 Subjects Intensive 2과목집중수업 (2nd ~8th Nov 2014 총 70시간)
일시: 2일 -Sun pm 6:00-10:00, 3일 ~7일 - am8:00-pm8:00, 8일 - am9:00-pm2:00
30여명의 최고의 박사 교수진이 신입, 편입 등록을 환영합니다.

남부개혁신학대학원엘에이 캠퍼스(SRTC SLA president: John H. Kim)은 11월 2일 오후 6시부터 8일 오후 2시까지 박사과정 집중수업을 한다. 금번 박사과정에는 기존의 선교학박사과정(D. Miss), 목회학박사과정(D. Min)에다가 비기독교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교류학박사과정(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D. Ics)'을 열게 되었다.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여러 환경의 사역자들이 교육을 받되 현장과 신학을 복음화 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학연구의 과정이 될 것이다. 첫 수업은 2일 저녁 6시부터 DMS 801 Biblical Interpretation & Project Development I: 성경적 해석과 논문 진척을 강의한다.

강사 팀:

Dr. Young G. Jang(Th.D. at Boston)-Biblical Interpretation
Dr. Soo Y. Kim(특강 Th.D. at Dallas)-N.T. Interpretation
Dr. S. Roh(특강 Ph.D. at Drew)-O.T. Exogesis
Dr. John H. Kim(D. Miss at GTS, Global President of CIU)-Project Development

둘째 수업은 수요일부터 DMS 841 Apostolic Spirituality & Parental Spirituality: 사도영성과부모영성을 강의한다.

강사 팀:

Dr. Ae H. Kwon(Ph.D. at Fuller)-Theology of Spirituality
Dr. Chang B. Lee(Ph.D. at UCLA)-Spirituality of Job
Dr. Kathryn Koo(특강 Ph.D. in Clinical Psychology at Fuller)-Spirituality of Woman & Spiritual Development of Human
Dr. Yonggeop Jeong(특강 Ph.D. in Intercultural Studies at Fuller)- Spirituality of Mission from a Position of a Weakness in Luke Acts
Dr. John H. Kim(D. Miss at GTS, Global President of CIU)-Practice of Parental & Apostolic Spirituality

신학부: B. Th 과정, 대학원: M.B.S 와 M.Div 과정 학생모집중

수업장소 2975 Wilshire Blvd., #630 Los Angeles, CA 90010 (Office #415)

등록문의: 213-219-0649 (Grace), bostonch@hotmail.com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평 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지금 미국은 극심한 문화전쟁 속에 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형성된 미국사회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무너트리려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전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텍사스의 휴스턴 에니스 파커 시장은 소위 '화장실법(bathroom law)'을 제정하려고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직 시장직에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혀 물의를 일으켰다. 그녀가 제안한 법안은 남녀의 화장실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즉 성별에 따라서 남녀의 구분은 한 현재의 문화와 사회적 구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이다. 남자라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고, 여자

라도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다. 얼마전 미국의 PCUSA교단이 동성애 문제로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이 생기는 등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캐톨릭도 역시 동성애 문제로 매우 복잡하다. 사제 중에 얼마나 동성애자들인가에 대한 통계는 다양하다. 10여년 전 이야기이지만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12,500여명의 캐톨릭 사제 중에서 동성애자들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Wikipedia에서 제공하는 미국 내의 통계는 15-58%로 추정된다. 미국의 범죄 통계를 제공하는 The John Jay Report는 정부의 요청을 받고 1950년부터 2002년까지의 고소된 캐톨릭 사제들의 성범죄 케이스를 조사했는데 피해자들의 81%가 남자

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56%가 찬성을 하고, 38%가 반대를 했다. 그것은 지난 6월의 같은 ABC/Post의 동성애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통계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시민들은 가진 지난 10년간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급변한 것이다. 교회는 문화명령의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문화와 세상에 관심도 없을 때에 동성애 지지 세력은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이제는 법적인 싸움에서 이미 진 전쟁이 되어버렸다.

문화에 대한 성경의 명령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인 문화명령을 잊고 포기하고 있었다.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은 창 1:28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의 기쁨을 가지고 주신 최초의 명령이다. 최근에 문화명령이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주장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 말씀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문화culture라는 말은 라틴어 클레레Clerc에서 온 말인데 그 의미는 경

첫째로, 우리로 환경의 청지기 역할을 하라는 명령이다.

정복하라 총만하라는 말씀은 전쟁이나 파괴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도리어 돌보라, 관리하라는 말씀이다. 창 2:15절 역시 우리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심을 분명하게 가르치신다. 문화적 사명은 하나님의 자연 환경에 대한 청지기 사명이다. 환경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생태계의 파괴이다. 욕심과 죄의 결과이다. 세계를 뒤흔드는 지구의 온난화도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환경을 돌보미 성도의 사명이다.

둘째로, 우리로 문화의 창조자로 살라는 명령이다.

이것은 사회적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함을 보여 주신다.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들에서 우리는 하나님 문화, 성경적인 가치관이 드러나도록 생활해야 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기도 한다. 세상은 헬미를 향해서 달려간다. 하지만 돈이 삶의 질을 높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opc316@gmail.com

Q: 저는 이미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한 교회의 안수집사입니다. 저희 교회와 이웃 교회들을 보면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으나 사실은 부흥이 정지된 침체 상태에 놓인 것 같고 목회자의 설교들도 열심하는 하는데 영적인 감동이나 다이나믹이 없습니다. 속으로 자꾸 비판하는 마음보다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싶은데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세리토스에서 김

A: 오늘날 미국의 한인 이민교회도 그렇고 미국교회, 한국교회도 동일하게 영적인 침체상태에 빠진 교회들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는 교회의 부흥이 정해진 지 오래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적으로 목회자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꼭 기도해주시어야 할 것은 "영적인 부흥입니다. 생존(Survival)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부흥(Revival)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 개인적인 영적 부흥, 교회적인 부흥, 민족적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인적인 영적 부흥, 교회적 부흥, 민족적 부흥위해 기도

그런데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에 인간 편에서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영적부흥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1904년 광산 노동자였던 이반 로버트가 기도의 불씨가 되어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술집, 창녀, 당구장이 없어지고 범죄자들이 자취를 감추고 교회마다 초만원이 되고 그 연쇄 폭발이 영국전역과 구라과 전역 아프리카 미국 중국 한국에 까지 미쳤습니다. 6.25동안 때 공산주의가 대구까지 쳐들어 왔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다 공산화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교회는 손바닥만하게 남겨진 부산으로 피난해서 목회자들이 초량교회에 모여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 결과 유엔이 소집되어 16개국에서 파병을 결의했습니다. 거 부권을 가지고 있던 소련대표가 갑자기 설사가 나서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유엔과 미국이 파병되고 공산군은 물러가고 오늘의 5만교회 1200만의 기독교인 생긴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가장 부흥이 일어난 때는 1970년대였고 1990년 이후에는 부흥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의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70년대 한국교회는 12년 동안 400%의 교인이 증가했고 그 기간에 경제 성장률은 980%였습니다. 영적부흥이 경제 부흥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서울주변에는 230개의 기도원이 있었고 기도원마다 금식기도꾼들로 붐비었습니다. 그중에 오산리 금식기도원은 한국기도원의 기도 부흥의 상징적 기도원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문화 전쟁 속에서 문화 명령 지키기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즉 자신이 성별이 남자라고 "내가 여자라고 느껴진다" 하면 여자화장실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교회 내의 화장실도 바꾸어야 한다. 휴스턴의 목사님들 중에서 50여명이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그랬더니 이제는 목사님들의 설교, 원고준비, 대화, 카톡 메시지 등 모든 것들 다 소환했다. 그래서 그들의 발언 가운데서 동성애에 관련된 것 찾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동성애에 관계발언이 발견되면 그 교회의 세금면제 특권을 취소하겠다고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equal right이 아니라 gay right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캐톨릭에서도 동성애와 이혼에 대하여 태도를 바꿀 것으로 우려되었었다. 지난 주 캐톨릭을 대표하는 세계의 추기경 200여명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했다. 교황의 동성애 우호적 태도에 대하여 보수적인 40여명의 추기경들이 동성애와 이혼에 대한 캐톨릭의 입장이 변화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강력히 반대를 했다. 17일 투표 결과 '동성애자들을 수용하는 열린 태도'에 대한 추기경들의 투표결과는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얻었지만 2/3이상의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동성애 지지자들의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캐톨릭이 세상문화를 따라가고 있다.

들이었다. 많은 케이스들이 문제된 사제가 죽은 다음이어서 조사를 계속하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수였다. 하지만 문제는 분명했다. 동성애였다. 피해자의 연령은 22%는 10살 미만이고, 51%가 11-14세이고, 27%가 15-17세였다. 캐톨릭의 진통을 볼 수 있다. 만약에 캐톨릭에서 동성애가 수용된다면 그 파장은 어떠한가 짐작이 되지 않는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문화전쟁에서 이미 패배하고 있다. 이들의 전략은 동성애의 이슈를 인권문제와 같은 맥락으로 연결하려고 애를 썼었다. 그 노력은 성공적이었다. 2003년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동성애 금지법 Sodomy law를 위헌 판정했다. 2013년 6월 동성부부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보호법(DOMA)을 위헌판정 내렸다. 동성애부부들에게 세금혜택이 제공되었다. 2014년 10월에는 대법원은 5개주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렸다. 그 외에 다른 6개의 주가 대법원 판정을 기다리는 것을 합하면 이제는 전체 미국이 동성애를 허락하는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드디어 불물이 터진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문화전쟁에도 그들은 승리를 했다. 미국의 ABC뉴스의 2014년 10월 17일 보도는 최근 조사는 이번 달 동성애를 금지하는 주법들

작한다는 뜻이다. 농업이라는 agriculture 역시 농경문화라는 뜻이다. 문화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강조하는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이다. 동양인들은 문화를 정신적 의미로, 서양인들은 물질적 의미로 파악한다.

우리의 생각에는 문화를 말하면 세속적이라는 비성경적인 생각을 하곤 한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서 우리의 신앙만을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 많았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도 문화를 떠날 수는 없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문화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성경적 가르침은 우리가 문화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문화를 새롭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문화적인 존재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는 창조자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물론 창조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지만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에서 유'의 창조이지만 우리에게도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사명은 동식물의 이름을 짓는 창조적 사명이었다. 창조 후에 주신 최초의 복이 문화명령이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개혁신주의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문화명령을 현대적인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는 것이 아니다. 서로 함께 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문화의 창조자가 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우리가 가치를 변화시키는 변혁자가 되라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 문화에는 가치가 있다. 옳고 그름이 있다. 문화적인 표현과 내용은 사회마다 다르다. 하지만 그 가운데 흐르는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성도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성도는 가치관을 주도하는 성경적 가치관이 세계에 가득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에 복되고 아름다운 정의사회가 이루어진다. 성도가 무관심하고 문화사명을 저버리게 될 때에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고,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멸망해야만 하는 문화와 땅이 되는 것이다. 그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

문화명령(창1:28)은 지상최대 명령(마28장)의 명령과 함께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고 비전이다. 문화전쟁에 참패를 당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청교도적인 가치관으로 회복하는 일을 위한 우리의 헌신의 헌신이 있어야 하겠다.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사역자 청빙

조지아 주 제2의 도시인 컬럼버스 반석장로교회에서 25,614 S/F의 새 예배당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주님 나라 확장을 꿈꾸실 두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현재는 출석교인 310명(영어회중 40명 포함)이며, 아틀란타 공항에서 남쪽으로 90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는 32만명(한인인구 약 2천명)정도이며,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다운타운으로 선정된 전원의 도시이고, 대도시에 비하여 생활비 및 각종 보험비가 저렴합니다.

- I. 교육담당 부목사 (전도사)
- II. 행정담당 부목사 (전도사)

자격요건 1. 개인 경건의 시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분
2. 목회학 석사(M Div) 이상의 장로교 목사 혹은 기독교 교육학 석사 이상의 장로교 전도사

제출서류 1. 이력서(한/영 각 1부)
2. 졸업(혹은 학력) 증명서
3. 본인 및 가족 소개서(가족사진 1매 포함)
4. 최근 6개월 내 설교 2편 (해당 CD/DVD 또는 website 주소제출)

서류 제출처 및 기간
1. 제출마감(도착기준) 2014년 12월 20일(토)
2. 제출처
1) 우편 Rock Presbyterian Church (Attn. Elder Ha, Jong Wook)
5301 Sidney Simons Blvd. Columbus, GA 31904,
2) Email: ha_jong@columbusstate.edu
3. 교회website: www.rockpc.org
4. 문의 Dr. Ha, Jong Wook, Elder Won, Young Soo
Tel. 706-580-9667(청빙위원회장 하중욱 장로) 혹은 706-333-6079(원영수 장로)

컬럼버스 반석장로교회

목회자 청빙

Valley 지역 North Hills에 위치한 벨리중앙장로교회는 39년의 전통을 가진 장로교회로서 말씀과 사랑으로 새로운 비전을 인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 자격 *

1. 개혁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M.Div) 이상 소지하신 분
2. Full Time 사역자로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로 목회 경력 5년 이상 교회를 섬기신 분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4. KAPC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분

* 제출 서류 *

1. 이력서(가족 사진 첨부)
2. 목회 계획서(비전, 교회 운영계획 등)
3. 자기 소개서(목회 경험에 대한 세부 내용 포함)
4. 최근 설교 원고2편(CD가 아님)

* 접수 마감: 11/15/2014 까지

* 참고 사항 *

1.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후보자들에게 2차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만드셔서 반드시 E-mail 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E-mail: vkpc7@gmail.com
벨리중앙장로교회 청빙위원회 앞
Valley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15204 Plummer St. North Hills, CA 91343

벨리중앙장로교회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동부 카투어 사용 부족들(EASTERN KATUIC SPEAKERS)



8 개의 관련 부족들의 통합 프로젝트. 동부 카투어를 구사하는 부족들은 주로 베트남 국경 근처 라오스 남부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로 다른 종족들이 일단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 있긴 하지만, 실상 그 방언들 모두 몬 크메르(Mon-Khmer) 어족(語族)의 동부 카투어 계통에 속한다. 이 소수종족들 가운데 칸투족(Kantu)은 카투(Katu)족에 가장 밀접한 연관되어 있는데 사실 그들은 "고지대 카투(High Katu)" 또는 "산지에 사는 사람들"로 불리기도 한다.

부족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오기 전부터 크메르 문화가 존재했었지만 타이인들과 베트남인들에 정복된 이후 세력이 약화됐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라오스는 여러 번 전쟁의 격전지가 됐다. 이 나라는 또한 중국, 러시아, 베트남 사이에서 정치적 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삶의 모습

30년 모습 이 지역의 반복된 전쟁은 동부 카투어 사용부족들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붕괴시켜버렸다. 오늘날 라오스 영토의 절반은 베트남 전쟁 동안 미군 전투기가 투하한 폭탄과 지뢰로 나타났었다.

라오스 폭탄 제거 프로젝트(Laos Bomb Removal Project)가 진행 중에 있지만, 동부 카투어 사용부족들이 있는 사라반 주(Saravan province)까지는 아직 접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종 교육팀이 이 지역으로 다니면서 지뢰폭발에 따른 문제인식을 일깨우고 지뢰제거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동부 카투어 사용부족들은 산악지대나 고지대에서 살며 "베고 태우는(화전) 농법을 이용한다. 또 대부분의 부족민들은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사냥과 채집도 한다.

사는 구역이 있는 주거형태)에서 산다. 이 주택은 대나무 기둥 위에 지은 전략적 방어수단으로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된다. 고상식 가옥 아래 빈 공간이나 그 주변에서 돼지와 닭, 오리 등을 자유롭게 키운다.

각 마을은 느슨하게 조직된 장로회에 의해 통치되며, 그들 중 한 명은 촌장(village headman)이 된다. 촌장이 중앙정부와 연결되었지만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

신앙

95-99.9%가 토속종교를 따른다. 그들은 창조주의 존재를 알지만, 또한 "피(phi)"라고 불리는 영적 존재들을 두려워하며 숭배한다. "피"는 사람들의 일상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은 강이나 밀림, 산에 깃든 영들을 숭배하는 것에 익숙하다. 영적 존재들인 "피"를 다루고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며 고지대 카투(또는 칸투)족은 최근까지도 사람을 제물을 바치기도 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위에서 언급된 6개의 동부 카투 부족들 가운데, 단지 파코족(pacoh)만이 자신들의 방언으로 된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다른 부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방언으로 번역된 성경과 기독교 문서자료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위에서 언급된 6개의 동부 카투 부족들 가운데, 단지 파코족(pacoh)만이 자신들의 방언으로 된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탄압 중국인 목사 신앙고백 "정역형 위기에..."

중국의 한 목사가 당국의 기독교 탄압에 반발하다 정역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표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최근 보도했다.



저장성 윈저우 구원교회를 담당한 후양 이즈(40) 목사를 지난 13일 접견한 변호인 장 카이는 "후양 목사가 건강해 보였다"며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오히려 은혜롭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로 승승장구했던 마크 드리스콜 목사가 책 표절, 막말 논란으로 불거진 사퇴 압박에 결국 사임했다. 마스힐교회장로회는 지난 15일 교회 홈페이지에 발표문을 통해 "드리스콜 담임목사가 14일 사임서를 제출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마크 드리스콜 목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다"며 "자존심을 부리고 분노하며 거만했던 과거를 회개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18년 동안 목회할 수 있었다"며 "깊은 슬픔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도 했다.

미국 기독교매체 RNS가 입수해 공개한 사임서에서 드리스콜 목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다"며 "자존심을 부리고 분노하며 거만했던 과거를 회개했다"고 고백했다.

드리스콜 목사는 최근 몇 년간 부정적인 이슈들로 언론에 오르내렸다. 지난해 11월 출간된 책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실수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 나온 또 다른 저서는 사재기 의혹을 샀다. 교회 내부에서는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후양 목사는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윈저우 평양현 구치소에 갇혀 인민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7월 허난성의 장 사오지에 목사가 후양 목사와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을 감안할 때 후양 목사도 징역형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예상했다.

후양 목사는 지난 7월 말 구원교회에서 십자가가 강제 철거되는 것을 막으려다 체포됐다. 교인 50여명과 인간방패를 만들어 철거반원에 맞섰지만 공안이 무력으로 진압해 14명의 성도가 크게 다쳤다.

마크 드리스콜 목사, 책표절·막말로 결국 사임

미국 대형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이라크 기독교인들, 민병대로 마을 지키다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민병대를 조직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반군 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 맞서고 있다고 독일 국제방송 '독일의 소리(DW)'가 최근 보도했다.



DW는 민병대의 도움으로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서 50km 떨어진 기독교 마을 알쿠시에서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전했다. 알쿠시는 이라크 초기 기독교인인 아시리아 기독교인들이 2000여년 전부터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곳이다.

DW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때 멈춘 교회의 종이 최근부터 간간히 울렸고 가게 주인들은 좌판을 다시 펼쳤다. 자동차도 드문드문 거리를 운행하고 있다. IS를 피해 마을을 떠났던 기독교인들이 서서히 알쿠시로 돌아오는 것은 기독교 민병대 덕분이다.

알쿠시는 지난 8월 초 IS가 인근 마을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던 뒤 황량해졌다. 이후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가 여러 기독교 마을에서 퇴각하자 알쿠시 주민들의 공포감은 극에 달했다.

가톨릭 '동성애 포용' 결국 무산

동성애와 이혼 등을 포용하려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도가 보수파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BBC방송 등 전 세계 외신이 18일 보도했다.



가톨릭 세계주교대의원대회(주교 시노드)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마지막 날 회의에서 동성애, 이혼

포용 관련 언급을 삭제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중간보고서에서는 "동성애자들도 기독교 공동체에 헌신할 자격과 은사가 있다" "이혼했거나 재혼한 신자도 영성체에 참여할 수 있다" 등 가톨릭교회의 금기를 깨는 혁신적인 내용이 담겼다.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투표 결과 118명이 동성애 문구를 넣는 데 찬성했고, 62명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구가 최종보고서에 채택된다면 참여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앞서 교황청은 보수파의 반발이 거세지자 동성애 문구를 '동성애 성향이 있는 남녀를 존중하는 태도로 환대해야 한다'로 중간보고서보다 한층 톤 다운해 절충을 시도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는 교회 교리상 결혼은 남녀만 할 수 있다고 다시금 못 박았다.

다만 최종보고서는 "결혼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남녀 커플 등의 결합에도 긍정적 요소가 있으며 피임도 존중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해 기존과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줬다.

영국 가디언은 최종보고서 내용을 전하면서 "개혁을 시도하려는 프란치스코 교황 등 진보파와 이에 저항하는 보수파 간 갈등의 골이 깊다는 걸 보여줬다"고 했다. 더 나아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이 좌절했다는 식의 보도도 많았다.

시노드에서 동성애 등이 거론된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평가도 있다. 가톨릭 동성애 인권단체 '뉴웨이즈 미니스트리'는 "시노드가 이 문제를 공개 토론한 점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Large directory of churches across various regions including NY, NJ, and Hawaii. Includes church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pastors.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53)



정 성 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바른 성례 집행

하나님의 말씀 선포

카이퍼는 참된 교회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카이퍼는 개혁 신학자 콰리(A.Comrie)의 말을 빌려 "참된 교회는 무엇을 찾아 내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려진 계시의 진리를 고백하고 증거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일찍이 16세기 요한 칼빈의 입장과 일치한다. 칼빈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또 들리며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대로 집행되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교회는 진리를 찾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진리를 이해하고 명백히 선포해야 한다고 했다.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종교단체로서의 교회와는 확연히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카이퍼는 현대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을 높이 올려 세우고 자기 자신들의 신(神)으

런 자들이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을 협박한다고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카이퍼는 이

로 만든다고 했다. 현대주의자들은 하나님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듯이 설명하려고 했다.

카이퍼는 이해하기를 교회는 관리만 잘하면 교회의 순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교회의 영적 부패를 막으려면 교회의 행정 관리나 통치로 하는 것은 아니라

는 현상들을 독일에 있는 루터교와 영국교회에서 찾았는데, 거기서는 행정관리가 교회 일을 주관했으며, 그들은 도리어 교회를 개혁하고 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교회의 퇴폐는 모호한 교리에서 시작하여 교인들의 악한 행실로 발전되기 때문에 교회를 신앙고백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믿

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교회의 교의(敎義)에서 벗어난 직원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성례를 더럽힐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탈하는 것이 되고 만다.

비록 카이퍼가 개혁교회의 교리를 철저히 고집했지만 그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교회관을 갖지는 않았다. 참된 교회는 파벌적이지어서는 안 되고 같은 신앙고백을 한 다른 단체들의 진실한 믿음도 소중히 생각하고 인정했다. 카이퍼는 종종 자기 자신의 죄와 동료들과 성도들의 죄를 가슴 아파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부패가 교회

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수립하는데, 철저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며 거룩하시기 때문이라 했다.

바른 성례 집행 (상)

정통적인 개혁신학을 따라서, 카이퍼는 성례가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16세기 개신교의 중요한 교회들은 모두가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聖禮)로 인정했다. 그러나 성례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들 교회들 간에는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 본래 성례(Sacrament)란 말은 라틴어의 Sacramentum에서 나왔으며 그 말의 본래 뜻은

tery)란 말의 헬라어 Mysterion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다. 또 복음(The Gospel, Kerygma)을 전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는 기본적 방법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회개해서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서약을 임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례란 죄사함의 복음을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가시적인 방법으로, 즉 세례식에는 물로, 성찬식에는 떡과 포도주로 선포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Visible Word) 또는 '내적인 영적 은혜를 나타내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시'라고 했다.

어거스틴의 정의는 후일 마틴 루터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분리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물론 요한 칼빈과 종교개혁자들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이는 중세 로마 가톨릭이 성례란 은혜를 주는 첫 번째 방법으로 여긴 것과는 달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권을 주장했다. 칼빈 이후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성례에 한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개혁주의자들은 성례가 기독교인들이 등한히 해도 그들의 영적 생활에 해를 주지 않는 상징으로 여기는 견해를 반대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문제에 대한 카이퍼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자. 물론 카이퍼는 개혁교회의 사역자로서 성례에 대한 전통적인 교리를 동의했다.

(9면으로 계속)

교회는 진리 찾는 수준이 아닌 진리를 이해하고 선포 유아세례를 '추정된 중생'으로 주장, 논란에 쌓이기도

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카이퍼는 때때로 그의 지지자들마저도 매우 당황하게 할 정도로 편지를 썼다. "당신은 모범적 교인이라고 할 권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족 때문에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였다.

카이퍼는 언제나 교회의 주인 되

어떤 것이 성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따로 떼어 놓는다는 의미이다. 로마 군인이 입대를 하게 되면, 그는 황제와 그가 속한 군대의 상관에게 순종의 서약을 했다. Sacrament는 군복무를 위해서 떨어졌던 사람에게 받는 서약이며 약속이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 말을 세례와 성찬식(Eucharist)으로 사용했고 Eucharist는 신비(Mys-

칼럼 음악목회 (38)

또 하나의 지휘자 (9)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중세 문예부흥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문화 사조를 구분한다면 르네상스 이전에는 교회 중심의 문화로서 기독교교회사 문화가 세속문화를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의 문화는 인본주의 사상이 확장되면서 세속문화가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근대와 현대에 와서는 세속문화가 오히려 교회에 영향을 주고 오늘날에는 세속문화가 교회문화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악분야도 르네상스 이전에는 교회음악이 세속음악을 이끌어왔지만 르네상스 이후로는 세속음악이 더욱 발전하여

세속음악이 교회음악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왔으며 오늘날은 세속음악이 교회음악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관리 보전하시고 하신 음악이 세속음악으로 발전하면서 본질적으로 많이 변질되어 왔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와 창조물들이 모두가 진화되어 간다고 믿습니다. 그 의미는 세월이 갈수록 모든 것이 더 발전해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갈수록 더욱 발전해갑니

다.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나쁜 것은 더 나쁜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도 진화되어가고 악도 진화되어갑니다. 갈수록 세상은 더욱 타락하고 악은 더욱 더 극악해져 갑니다. 범죄자들의 범행수법도 진화되고 사람의 악행의 정도가 상상을 넘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마치 짐승이나 악마 같은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도 진화하듯이 문화도 음악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아름다운 것은 더 아름답게 진화하지만 세속문화나 세속음악은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역행하고 반항하는 모습으로 더욱 더 진

화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음악의 모든 원천이 배음(Over tone)에 있는데 그 배음을 브레이크(Break)하고 날카로운 소리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소리를 마치 음악인 것처럼 음악 안에 포함시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정서를 파괴하는 변질된 음악이 세속음악을 지배하고 계속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음악이 세속음악이다. 진실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 남아 있지 않고 교회 안으로 이미 들어와 안방을 차지하고 이제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와 같은 무서운 일들을 계획하고 조장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살아 있는 미꾸라지를 솥에 넣고 추어탕을 끓이는데 조금씩 따뜻해지는 물속에서 앞으로의 일을 모르는 미꾸라지는 기분 좋게 즐기고 있다가 물이 뜨거워지면서 결국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것처럼 세속음악을 흥내 낸 문화나 음악이 교회 안에 들어와

마치 교회음악인 것처럼 성도들의 기분을 좋게 해 주면 성도들은 그저 은혜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좋아하다가 그 안에 빠져 있는 사이에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르고 당하는 교인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사람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 버린 목사나 교회 리더들은 결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치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하듯이 예배 분위기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은 형벌을 다 받으시고 속죄하셨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겠다고 해도 죄로부터의 해방이 결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

고 순전한 제물을 대신하여 부정 한 것으로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나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음악 특별히 예배음악에 대해 담임목사나 장로들이 기본대로 취향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함부로 아무런 음악이나 다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기뻐 부어 세우듯이 음악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기뻐 부어 세운 종들입니다. 그들이 왜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찬양이 어떤 찬양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사역을 위해 생명을 걸고 헌신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교회 안에 새로운 예배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한명철 목사의 저서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 기도 기도

본서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을 모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의 작은 불씨를 모아 큰 불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할 것이다.

한명철 지음 / 336면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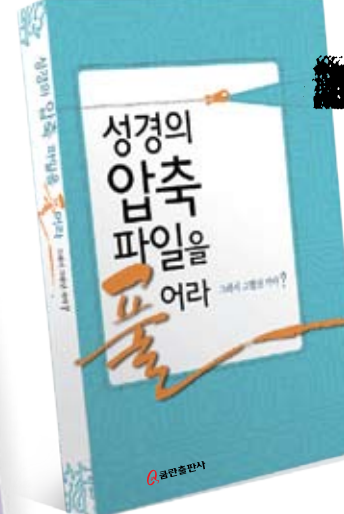
숨겨진 신화



이 책은 <<인본된 책>> <<개봉된 책>> 요한계시록 주석을 요약해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게 작성한 것으로 계시록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메시지가 확연히 드러나고 잘 활용될 것이다.

한명철 지음 / 304면 / 12,000원

성경의 압축 파일을 풀어서



성경은 일일이 다 배경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압축 파일과도 같다. 성경의 배경을 알면 그 압축 파일을 풀 수 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성경의 배경을 알게 되고 또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진희 지음 / 344면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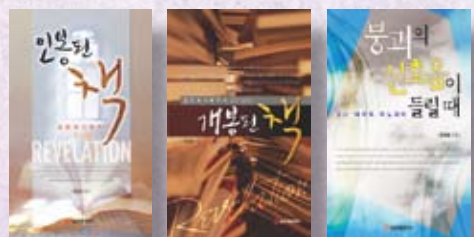
이스라엘 성지순례



주님과 함께 걷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스라엘 구약 역사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배경을 살펴보고 나사렛, 예인케렘, 베들레헴,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과 공생애 사역지, 예루살렘, 기타 이스라엘 성지를 지도와 사진을 곁들였는데, 전문 사진작가 Lisa의 손길로 현장감을 더했다.

탁은숙 지음 / 328면 / 20,000원

인본된 책 / 개봉된 책



요한계시록 주석-한명철 지음 / 1-11장 / 672면 / 25,000원
12-22장 / 584면 / 23,000원

봉괴의 신호음이 들릴 때

고난의 현실을 피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며 헤쳐 나온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그들의 실패와 재기를 통해 고난 극복의 지혜와 기술을 담았다.

한명철 지음 / 296면 / 13,000원

창조과학 칼럼 (209)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17) 하나님의 형상, 흙으로 빚어서

으로 바뀌어 나온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분이요. 감격이 아닐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짓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고 여자를 빚어(fashioned) 만드셨다(창2:21-22). 물론 이 과정도 창조의 기적이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되는 신화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나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자를 인정한다면 이상할 것이 없다. 진화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과학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의 기원은 설명할 수 없다.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 한 개가 적습니까?' 예전에 자주 있었던 질문인데 지금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지어낸 것인데 전혀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다. 아빠가 사고로 손가락을 잃었다고 그 자녀가 손가락 없이 태어나지 않는다. 사실 성경 원문의 정확한 표현은 갈비뼈 한 개 뽑아낸 것이 아니라 옆구리의 살과 피를 함께 떼어낸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한 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물론 아담은 갈비

성경 내용 중에서 웬지 말 꺼내기도 부끄럽고 동화같은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것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이야기일 것이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 넣어 아담이 되게 했고, 다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내용 그 자체는 그야말로 신화처럼 들린다. 지금은 이런 일이 절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성경의 기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에너지의 보존법칙인 열역학 제 1법칙을 통해 물질의 근원과 기원을 생각해볼 때 시간, 공간, 물질의 창조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에너지의 질에 관한 법칙인 열역학 제 2법칙을 통해 생명체와 우주의 질서를 생각해 보면 처음이 가장 완벽해야 한다. 이렇게 절대 무에서 그토록 가장 완벽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면 안된다. 성경의 창조자가 바로 그런 분이요. 그러므로 우주

하나님의 모든 창조활동이 지구중심으로 이뤄진 이유는 사람 때문 인체성분은 흙이나 흙에 비해 탄소(생명체 분자 뼈대 형성) 엄청 많아

와 인류의 시작은 가장 완벽하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 그대로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최초의 물질로 지구(the earth)를 창조하셨다. 그 이후 6일 동안의 창조 행위는 이 지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창조 4일째는 지구와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고 많은 별들을 만들어 지구를 장식하셨다. 각 종류의 식물들, 물에 사는 생물들, 날개 가진 생물들, 그리고 물에 사는 생물들도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 창조의 꽃인 사람 둘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마치셨다(창2:1-3). 그 창조의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창1:31).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었다. 처음 옛날 동안 하나님의 모든 창조 활동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그 지구에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사45:18).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엄청난 복을 주셨고, 이것도 부족하여 창세기 2장에 사람의 창조에 대해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심지어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여호와 하나님(Lord God)



성경의 창조 기사보다 더 논리적인 설명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창2:7). 그러나 동물들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라고 표현하여 창세기 1장보다 오히려 덜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창2:19). '땅의 흙'의 더 정확한 표현은 '땅의 티끌(dust of ground)'이다. 땅에는 여러 가지 형태와 성분들이 있고 각 지역마다 성분의 비율도 다르다. 따라서 인체의 성분들이 땅에서 왔지만 성분의 비율까지 땅의 평균적인 성분비와 동일할 수도 없고 그렇게 평범하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인체나 생명체의 구성 성분은 많은 것부터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티타늄, 수소, 인의 순서다. 탄소는 15번째의 미량 원소로 산소의 0.06%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체에는 산소(65%) 다음으로 많은 성분이 탄소(18.5%)다. 실제로 탄소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DNA, RNA, 각종 호르몬 등 거의 모든 생체 분자들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성경은 사람이 땅의 티끌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에 범죄한 후 다시 땅의 티끌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다(창3:19).

여자의 창조도 특별하게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 하나를 뜯어내 그것을 가지

대 한 개가 없이 평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갈비뼈를 뽑아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살로 채우셨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요20:27).

아담과 하와와 달리 만들어진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다. 그 사람이 가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인류 최초로 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류의 최초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아담은 땅의 티끌에서, 하와는 아담의 갈비대로, 가인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두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사람은 땅의 티끌로 지어졌을 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요10:8, 시119:73, 사43:7) 손으로 빚고(formed/fashioned)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직접 불어 넣어 만든 존귀한 존재다.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들을 위하여 창조자가 대신 죽음을 만끽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창조물의 가치는 피조물인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가 정하는 것이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감히 대적하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출9:14).

만약에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라는 요구를 바로가 별로 저항하지 않고 쉽게 들어주었다면 처음에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안타까이 여기시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좋아라하고 10가지 끔찍한 재앙을 통해 불신자 애굽인도 신자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 되심과 인간의 나약한 제한점이 크게 대조되었습니다. 아무리 부정할라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에 진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대적하는 자에 대한 징계와 저를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차이점이 너무나 현저합니다. 한두 번의 기적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아야 겨우 믿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200만 이상이 출애굽 대 이동을 감행하려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삭 긴장해서 같이 움직여주어야 가능합니다. 모세가 노예근성이 썩은 오합지졸의 대 무리들을 이끌려면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했습니다.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서로를 세워주는 10가지 재앙은 불가피했습니다. 민족적인 총체적인 위기를 속에서 저들은 하나로 단단히 뭉쳤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도 순종하는 자들도 모두가 살기위해 무섭게 하나가 됩니다. 질서가 없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10번의 격돌가운데 출애굽은 당연한 사실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결심이 굳어지고 전지전능의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으리라는 희망이 믿음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강력한 반발을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의지를 하나로 굳게 묶어주시는 역사를 해내셨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기도 모르게 동화된 세상에서 쫓기듯 밀려나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모든 역경을 하나님이나 하나님 중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며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방에 공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만나며 끈질긴 바보를 뒤로 하고 바로 덕에 애굽을 떠나며 얼마나 학습고대하던 출애굽이었던가. 홍해가 갈라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분하고 분해 뒤엎어 오던 바로의 애굽군대는 홍해가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물에 빠져죽는 등도 보지 못한 기상천외의 기적을 만납니다. 완전 대형 블록버스터 무비스토리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뚝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절대로 내 편이시니 높은 산들이 평지되리! 주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게 꿈인지 생인지? 출애굽해서 바로 모세와 누이 미리암이 앞장서고 온 회중이 어우러져 여호와와 성호를 찬양하니 모두가 기쁨이 충천합니다. 모세는 힘겨웠지만 지팡이하나 들고 믿음으로 걷는 신나는 사역자로 당당히 세움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름으로만 하나님 백성이던 이스라엘은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납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기적의 출애굽으로 체면적 신앙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사람이 어찌할 수 있으리! 믿음의 여정중에 만나는 장애물들 아무리 내 눈에 커보여도, 종래는 시련으로 치워주십니다.

24시간을 눈에 불을 키고 눈동자같이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돌보시는 주님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때로는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듯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도... 주께서 나를 위하시니 모든 대적을 끊어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별떼같이 달려들어 나를 공격하여도 주님을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힘을 다해 나의 주님 뒤에 숨으리라! 한번도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또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의 이름이 세계만방에 알려질지라!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미주 갈멜산기도원 특별 기도성회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www.galmelsan.or.kr / gstcenter98@gmail.com



장순직 목사
드림교회 담임
사단법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한반도 회복 기도 운동연합 대표회장
CTS 운영이사
총회(합동) 부흥사회 중경회장

날짜 2014년 10월 23일(목) ~ 11월 6일(목)

※주일 성회는 없습니다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2014년 조성근 목사 부흥성회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월 11일 13일 23일 10월 13일 17일 23일 29일	6월 10일 17일 23일 29일 6월 10일 17일 23일 29일	11월 10일 14일 17일 23일 30일	3월 7일 14일 20일 24일	11월 23일 29일 12월 19일 25일 29일	9월 15일 22일 29일 10월 6일 13일 20일 27일	11월 10일 17일 24일 30일 12월 7일 14일 21일 28일	8월 11일 18일 25일 9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	11월 10일 17일 24일 30일 12월 7일 14일 21일 28일	10월 13일 20일 27일 11월 3일 10일 17일 24일 30일	11월 10일 17일 24일 30일 12월 7일 14일 21일 28일	11월 10일 17일 24일 30일 12월 7일 14일 21일 28일



목회서신

Don't Stop Thinking About Tomorrow!!!



여승훈 목사 (시카고 가나안교회)

1977년도에 Fleetwood Mac이라는 보컬 그룹에서 Don't stop thinking about tomorrow라는 노래 불러서 대대적인 성공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

저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에 일어나 보려고 혼자서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을 인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막연한 내일에 대한 기대는 온전한 용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를 전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tomorrow는 막연한 미래가 결코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tomorrow는 상황이 좋아지든지 아니냐면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영화는 추상적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영화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성경은 말한다.

은 말씀한다. 예를 들면 수박 씨를 땅에 심으면 열매로 나타나는 수박은 씨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종교개혁 500주년 미주기념사업회 발족 오는 26일 주님세운교회서 종교개혁주일기념예배

종교개혁 500주년 미주기념사업회(대표회장 정시우 목사)가 지난 20일 발족했다.



종교개혁 500주년 미주기념회 관계자들

는 미주 모든 한인교회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교개혁기념주일 예배 예문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 콘테스트를 실시해 종교개혁 정신을 불어넣는 일을 하게 되며, 2세들을 위해 새로운 의미의 종교개혁을 나누는 세미나도 마련하게 된다.

김 목사는 오는 26일(주) 토론크스에 위치한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로 오는 11월 하순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개혁세미나를 실시하게 된다.

의 개혁동력이 줄어들었다. 이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포스트모던주의의 도전에 휘청거리게 됐으며, 성직주의 성장주의, 승리주의에 심취돼 외관만 키우고 내실을 다지지 않아서"라고 말하며 "이번에 마련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가 운동으로 발전돼 미전역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시우 대표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며 이민교회가 종교개혁정신을 이어받아 교회가 밝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스텝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정시우 목사 △사무총장: 조명환 목사 △준비위원장: 김영대 목사 △총무 및 회계: 심명구 목사. (박준호 기자)



PGM선교회 선교사 파송식에서 호성기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Beyond Korean Diaspora!" 주제 제3회 PGM 세계전문인선교대회 및 선교사 대회

제 3회 PGM 세계전문인 선교대회 및 선교사 대회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에서 "Beyond Korean Diaspora!"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4년 마다 열리는 본 선교대회는 이민교회 선교 동력화와 선교적 교회로 회복, 선교보고 및 선교지 현황을 통한 선교 도전, 평신도 장, 단기 및 Here & Now 선교사를 발굴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매 저녁집회에는 중국천진두루빛교회, 뉴욕에일교회, 콘트라코스타 한인장로교회, 달라스수정교회, 헌트빌장로교회, 시나브로교회, 뉴저지 하베스트교회, 과테말라한인교회, 시온성교회, 월드미션처치, 캐나다 큰빛교회, 은혜한인교회, 뉴저지 하늘교회 등에서 330여명이 참석했다.

또 이번 선교대회에는 17개국에 흩어져 있는 PGM 선교사 41가정 68명과 금년에 파송될 선교사 45가

정 84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번 대회 하이라이프는 선교사 파송식이었다. 이날 파송식에서는 8가정이 해외파송 선교사(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땅과 종족으로 파송)로, Here & Now 선교사(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비량 선교사) 37가정이 헌신을 다짐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헌신해온 강영희, 장은희 선교사 은퇴식을 통해 그동안의 헌신을 치하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 대회기간 중 PGM선교회 이사장 이취임식을 통해 양춘길 목사(뉴저지필그림교회)가 이임하고 정인수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가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Amnos Ministries, GMI, JAMA와 GPA선교회와 MOU 체결식을 가졌다.

또한 PGM 후원회 발족식을 통해 회장 전기현 장로(살맛장로교회), 부회장 최수만 장로(필라 안디옥교회), 총무 서희모 장로(콘트라코스타한인장로교회), 서기 안형미 선교사(PGM 본부)를 임원으로 선출해 더욱 더 PGM선교회를 굳게 세워갈 것을 다짐했다.

(기사제공: PGM선교회)

온전한 사람 되는 영성...

'성막영성' 출판감사예배 및 공개세미나



성막영성 출판감사예배 및 공개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크리스천 영성센터(대표 송택규 목사)가 주최한 성막영성 출판감사예배 및 공개세미나가 20일 오후 2시 로드랜드 대학교(총장 이강일 박사)에서 열렸다.

저자 송택규 목사는 인사말에서 "성막영성의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쓰게 하신 내용들로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요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바르게 살아야 하고 존경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손가락질 받고 살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의 백성들이 손가락질 받고 존경받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고민하다 나온 책"이라고 말했다. 로드랜드대학교 이사장 정가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출판감사예배는 김철수 목사(은혜와승리교회 담임)가 대표기도 했으며, 손사라

전도사가 특별한찬양 했다. 이어 박효우 목사(남가주교회 회장/풍성한교회 담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딤후3:16-17)"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영감으로 쓰여진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는 일정일회도 변함없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영성 나오게 한 이유가 있으시다. 영성회복은 사람되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있다. 성막영성은 사람 되는 영성이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화의 과정이 영성회복의 과정이다. 사람이 되자 성도가 되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자"고 말했다.

이어 정가진 목사가 저자소개를, 김강호 목사(크리스천헤럴드 사장)가 서평을, 김영찬 목사(OC목사회 회장)와 배수호 목사(남가주기독교원로목사회 서기)가 축사했으며 이 대한 목사(남가주기독교원로목사회 직전회장)가 축도했다.

한편 예배 후에 성막영성 공개세미나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자마 대표 이취임 예배 및 이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자마 제 2대 대표에 강순영 목사 취임 17일 이취임 예배 "차세대 멘토사역 시작"

자마 대표 이취임 예배 및 이취임식이 17일 오전 10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내 웨딩채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자마는 지난 21년간 대표로 섬겼던 설립자 김준근 교수가 차세대 핵심 훈련 과정인 글로벌리더십개발원(GLDI)과 4년제 대학 설립에 집중한 뒤 JAMA 대표직을 내려놓고 설립자 겸 이사로 섬기게 됐다. 그동안 JAMA의 부설립자 겸 대표로 섬겨왔던 강순영 목사가 제

2대 대표직을 맡게 됐다.

1부 예배순서에서 한기홍 목사는 마태복음 5장 13-16절 말씀을 통해 "자마사역은 회개운동이며, 신앙계승운동이자 세계 선교운동"이라고 밝혔다.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시작한 자마가 차세대 영적유산이 전해도도록 쓰임 받고 있다. 빛을 발하는 크리스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 자마의 영향력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2부에는 이취임식 순서를 갖고 김준근 교수는 환영사를 통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대표직을 이임하고 GLDI 사역을 하게 됐지만 계속해서 자마를 섬기며, 피와 땀이 다 질 때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순영 목사는 신임대표 인사를 통해 "김준근 대표에게서 대표직을 맡아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차세대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가 돼 망설였다. 그러나 대표직을 맡아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사랑과 상함을 통해 받은 메시지만큼 대표직을 수락하게 됐다. 앞으로 자마 사역은 계속 계속해 나갈 것이며, 미국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차세대 사역자들을 위한 멘토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마는 오는 11월 11일 혼다 센터에서 있을 'A Line in the Sand'가 주최하는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영적부흥과 대각성"을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를 미기총과 함께 주관한다. (박준호 기자)



40주년을 맞이한 나성서울코랄의 제70회 정기연주회에서 나성서울코랄이 청중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

나성서울코랄 창단40주년기념

19일 제70회 정기연주회 성황

나성서울코랄(단장 안혜숙, 지휘 진정우 박사) 창단40주년 기념 제70회 정기연주회가 19일 오후 7시 30분 뮌스터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

희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연주회는 성가합창, 한국가곡&성가, 미국민요 모음곡, 한국현대성가 등 4개의 섹션으로 나눠 연주됐으며 김동현 장로(수원대학교 대학원 합창지휘교과 교수)가 객원지휘자로 참여했다.

또한 미주청소년예술단(지휘 서지혜)과 소프라노 김희우, 김줄리, 바리톤 김윤환이 찬조 출연해 40주년을 기념하는 나성서울코랄 연주회를 빛냈다.

이번 연주회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앵콜곡으로 부른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53)

(7면에서 계속)

하지만 세례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의견을 첨가했다. 이른바 벨직신경,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돌트신경을 믿는 다른 동료들과 논쟁이 붙었다.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유아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계승했기 때문에 유아세례가 타당하다는 전통적인 신념을 강력히 지지했다. 즉 그는 허브리인들의 자녀들이 할례를 받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있다는 외적인 증표로 삼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자녀도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신약시대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69-74면에는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거기서 '세례는 중생을 위한 씻음이며,

죄를 씻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세례 할 때 쓰이는 물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준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세례는 '하나님의 보증물이며 속죄하는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표시'라고 된다. 그런데 카이퍼는 세례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과 세례시의 물이 죄인들을 중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그는 성도들의 자녀들 대부분이 그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영적인 생명을 소유했다고 주장했다. 카이퍼는 중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으로 연연하지 않으시고 즉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유아의 경우는 말씀이 없어도 은혜롭게 중생할 수 있다고 믿었다. 중생은 유아들이 행사할 수 없는 믿음을 심어주며 그 믿음은 그들의 생

애 후반에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카이퍼는 이를 추정된 중생(Presumed Regeneration)을 주장함으로써 논쟁을 일으켰다.

카이퍼는 1891년 미국의 장로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기를 '유아 세례는 중생이 먼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베풀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아의 경우에는 중생이 일어났으며, 세례란 그것을 입증하는 약속의 표시라고 주장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택자를 알고 계시니, 교회 유아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독단적 선언'을 해서 안 된다고 했다. 카이퍼는 중생과 회심을 동일하게 생각지 않았다. 카이퍼는 실제로 구약에서도 할례 받은 사람이 가운데다 믿음이 없어도 멸망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교회도 세례 받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음호에 계속)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목사회 체육대회 및 세미나

뉴욕한인목사회(회장 황영진 목사) 체육대회가 10월 30일(목) 오전 10시 알리폰트 파크에서 열린다. 또 목사회는 25일(토) 오전 10시 본지 필자인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및 대신대 총장, 현 칼빈대 석좌교수)를 강사로 "목회와 설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장소는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

▲문의: (917)862-0523

퀸즈장로교회 "한가족 축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할로윈데이인 10월 31일(금)을 함께 하는 "한 가족 축제"로 정하고 자녀들과 함께 축제를 벌인다. 즐거운 놀이기구, 맛있는 음식, 은혜로운 집회로 이웃을 초청한다.

▲문의: (718)886-4040

커네티컷교회 영적대각성연합 부흥성회

커네티컷한인교회협의회(회장: 황현조 목사)는 커네티컷 지역 복음화를 위한 교회연합 영적대각성 부흥성회를 10월 31일(금)부터 11월 2일(주)까지 개최한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알자"(호6:3)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합 부흥성회의 강사는 김종훈 목사(뉴욕에일장로교회 담임, 전 뉴욕교회 회장)가 초빙됐다.

집회는 3개 지역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북부지역(금요일 오후 7시 30분)은 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김정환 목사), 중부지역(토요일 오후 7시 30분)은 뉴헤이븐한인교회(담임 노대준 목사), 남부지역(주일 오후 5시 30분)은 커네티컷선교교회(담임 박재홍 목사)에서 각각 열린다.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목회자 세미나와 오찬이 예정돼 있다.



선한목자교회 가을부흥회에서 원팔연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라"

선한목자교회 가을부흥성회, 강사 원팔연 목사

선한목자교회(담임 황영진 목사)가 원팔연 목사(전주바울교회 담임)를 강사로 가을 부흥성회를 가졌다.

원팔연 목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저녁과 새벽, 주일예배에서 말씀을 전했다.

첫날 저녁 부흥회는 황영진 목사의 인도로 엄달호 목사 기도, 한문섭 집사의 특송 후 원팔연 목사가 설교했다. 황영진 목사는 강사 소개에서 "원팔연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성경교 총회장을 지내시고 필리핀연합부흥성회 강사로 오셨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님으로 영혼 구원, 전도에 생명을 걸고 목회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또 황 목사는 "이번 부흥성회가 선한목자교회의 부흥에 놀라운 분기점이 되기

를 소원한다"고 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자"고 말했다.

원팔연 목사는 창세기 12장 1-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니"라는 제목으로 했다. 원 목사는 "어릴 때 공부를 못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했다"며 "그러나 예수 믿고 목사가 되니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백화점 왕모든 체신부장관까지 지낸 존위메이커의 어린 시절 신앙을 소개했다. 또 성경인물 중 아브라함이 가장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라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무서울 게 없다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후원자 초청의 밤" 유은성 찬양사역자 초청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월례회 결의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가 지난 16일 10월 월례회를 갖고 11월말 "후원자 초청의 밤"(가제)에 대해 논의했다.

11월 30일(주) 저녁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황영진 목사)에서 열기로 예정된 행사가 밸런트 김정화 홍보대사의 불참 연락으로 인해 논의가 오간 가운데 김정화 씨의 남편 유은성 찬양사역자만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행사를 준비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초청자 범위, 제반 경비와 경비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회장단에 맡기기로 동의했다.

회의에 앞서드린 예배는 박성원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명 목사, 설교 김영환 목사, 축도 장경혜 목사

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환 목사는 "능력주시는 성령님"(행1: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으로 성령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라며, "연약한 우리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첫째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 둘째 기쁨의 능력을 주신다, 셋째 봉사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떡과 복음을 전하는 기아대책의 일을 능력있게 감당하자"고 강조했다.

모든 회의의 최재복 장로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왼쪽부터 이재덕 회장후보, 신현택 선관위원장, 이종명 부회장후보가 언론토론회 후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회협 정부회장 후보 언론토론회

이재덕 회장후보 · 이종명 부회장후보 참석

뉴욕교회협이 오는 27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정부회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언론토론회를 열었다.

21일 정오 뉴욕교회협 사무실에 열린 토론회는 신현택 선관위원장이 도로 시작돼 회장후보 이재덕 목사와 부회장 후보 이종명 목사가 각각 정견을 발표했다.

이재덕 목사는 "41회 회장으로 임후보하면서 지금은 전세계 영적 상태가 기동할 때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소통과 상상하는 교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회원교회들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종명 목사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부회장으로 다시 출마하게 됐다. 지난 40년 동안 선배들이 닦아놓은 것을 본받고 발전시키는 회원교회들이 되도록 부회장의 역할을 다하며 회장의 일을 독려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초 건물이전을 하는 교협의 재정적인 운영에 대한 질문에서 이재덕 회장후보는 기부형식의 교회펀드비로 모기지(월3천 달러)를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정

의 부족한 것은 회원교회들을 심방하며 개별적인 소통과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할렐루야대회 강사 및 대회 계획에 대한 질문도 있었으며 강사로서의 총회 후 한국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미기총의 이단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종명 부회장후보는 지난 37회 부회장으로 38회기에 회장 임후보를 하지 못한 것과 이단들의 전단지 살포에 대한 해명서/사과문을 제출했으며 이날 기자들에게 배부됐다.

또 교회분쟁에 교협의 입장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으며 단일후보로 총회 당일 선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단일후보지만 당일 '법으로 하자'는 회원의 발언이 있으면 투표하게 되며 제적인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당선된다.

이날 평신도부회장 후보와 감사 후보 2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유원정 기자)



뉴욕초대교회 새 성전 입당예배를 마치고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

뉴욕초대교회 새성전 입당예배, 김삼환 목사 초청

뉴욕교회협 회장 김승희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초대교회가 지난 19일 저녁 5시 새 성전 입당예배를 드렸다. 예배 설교는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담임)가 맡았다.

김삼환 목사는 "솔로몬의 성전"(왕상3:4-15)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주셨는데 잘 섬겨서 교화다운 사명을 잘 감당해 미주 한인교회 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강조했다.

김 목사는 "기도의 능력은 놀랍다. 기도하면 존귀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부르짖으라. 기도의 번제를 쌓으라"고 역설했다.

김승희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우리의 기도와 눈물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사야서 할 일이 많다.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되게 해달라"고 입당기도 했다.

입당예배는 김승희 목사 사회로 기약사중주의 전주로 시작해 성서

교육, 기도 김원기 목사(뉴욕교회협 증경회장), 성경봉독 김홍석 목사(뉴욕늘기쁨교회 담임), 성가대 찬양, 설교, 헌금기도 장경혜 목사(뉴욕교회협총무), 헌금특송 기약사중주, 축사 남후남 장로(PCUSA 동부한미노회장), 장석진 목사(미기총 회장), 축가 흥선사중장, 교회약사 보고 박명준 장로, 입당선언 당회장, 특송 뉴욕장로성가단, 인사 및 광고 박종규 장로, 축도 김남수 목사(프라미스코교회 담임), 만찬기도 이재덕 목사(뉴욕교회협 부회장)의 순서로 마쳤다.

뉴욕초대교회는 1981년 10월 김승희 전도사를 중심으로 우드사이드 73가에서 개척예배를 드렸으며 1991년 노던블라바드 126가로 이전했다가 1997년 직전 장소인 루즈벨트 71가로 이전했다. 그리고 현 건물은 지난 10월 10일 클로징을 마쳤다.

한편 김삼환 목사는 성전을 이전할 때마다 입당 기념부흥회를 인도했으며, 이번에도 18일 저녁 뉴욕초대교회 특별부흥성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원로목사회 10월 월례회 성료

대뉴욕지구 한인원로목사회(회장 소의섭 목사) 10월 월례예배가 지난 16일 뉴욕만나교회당에서 열렸다.

이성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배는 한재홍 목사의 기도, 허봉기 목사의 말씀 선포, 장준순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허봉기 목사는 빌립보서 4장 4-7절 말씀을 본문으로 노년의 삶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세 가지 선택을 하면 노년의 삶이 아름다운 행복이 된다"며,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도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닌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면 행복해진다. 둘째는 관용, 나이가 들수록 더 너그러워지는 삶 부드럽고 너그러워지는 것이 잘 늙는 것"이라며 관용을 선택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이 세 가지 선택함으로 노숙한 행복과 모범이 되는 삶이 돼 젊은이들에게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욕원로목사회 다음 월례회는 하은교회(담임 고 훈 목사)에서 11월 5일(수)에 열린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목회자 영성은 말씀과 기도"

이영훈 최성규 이태근 목사 초청 교역자세미나

이영훈 목사와 최성규, 이태근 목사가 뉴욕지역에서 목회자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총회장 이만호 목사)와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총회장 정영호 목사)가 공동주최한 교역자세미나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는 "목회자의 영성", 최성규 목사(순복음인천교회 담임)는 "성경 7호, 7행복", 이태근 목사(순복음분당교회 담임)는 "순복음의 기도 영성"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세미나는 장석진 목사의 기도와 이만호 목사가 강사를 소개했다. 이만호 목사는 "이영훈 목사는 소개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려진 분"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뉴욕의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많은 도전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한 이영훈 목사는 "목회자의 영성은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전도의 영성, 성령충만의 영성"이라고 설명하며 그중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특별히 강조했다.

이 목사는 "교회성장은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같이 가야한다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순종으로 헌신으로 반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이며 교회는 목회자만큼 성장한다. 1차적 책임이 목사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목사는 "이민목회 때의 훈련과 연단, 아픔 등 나를 훈련시킨 분들에게 감사한다. 누구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목회자이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중요하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은혜"라며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요즘 한달에 2천명씩 늘고 헌금도 10% 늘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지난 3, 4년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며, "교회를 더 바르게 세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말씀,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설교준비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기독교 효 사상을 주장해온 최성규 목사는 성경은 효경이라며 성경 7호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 어른 스승, 어린이 제자, 가족, 나라, 자연, 이웃이며 7행복은 가정, 학교, 사회, 경제, 나라, 교회, 인류라고 소개했다.

최 목사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성경적 효가 살 때, 개인들은 행복하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바르게 선다"고 말했다.

이태근 목사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며 "믿음으로, 간절하게, 행함이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응답받는다"고 말했다. 또 응답이 오는 여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4차원 능력있는 기도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영훈 목사는 21일 저녁 프라미스코교회에서 열린 뉴욕대성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이영훈 목사와 최성규, 이태근 목사가 교역자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했다.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장에 허윤준 목사

20일 정기총회, 부회장 임영건 목사, 이경님 전도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지희 목사)가 지난 20일 제 2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허윤준 목사(10회)를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임영건 목사와 이경님 전도사가 유임됐다. 감사는 홍춘식 목사, 이종태 목사가 선임됐다.

허윤준 목사는 "생각지 못했다. 1년간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 조그만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신수갑산II 식당에서 열린 총동문회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임영건 목사의 인도로 기도 정기대 목사, 성경봉독 이경님 전도사, 설교 김지희 목사, 선교보고 김인선 선교사, 광고 이종태 목사, 축도 손한권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지희 목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고전3:1-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난 1년간 바쁘고 힘들었지만 보람있고 행복한 한해였다"며,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돕는 영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

다"고 말했다. 김지희 목사는 "동문회는 무궁히 발전해야 한다. 420명 동문들의 사역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분열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역하는 동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나카라과 선교 5년차인 김인선 선교사는 3년차부터 어린이 사역을 시작해 현재 교인 80명 중 40명이 어린이로, 어린이합창단을 만들어 뉴욕공연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됐으며, 선교센터와 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회기 총동문회는 동부개혁장신학교에 불학기 5명 가운잡기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동문 미자립교회 2곳과 선교지 2곳, 양로원 사역 1곳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재정은 총수입 1만6천650달러, 총지출 1만5천906.73달러, 잔액 743.27달러를 보고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원로목사회 10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제34회 OC교회연합 성가합창제 성황

말라위 결식아동 위한 모금 목적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연합회(OC교회연합 회장 신복수 장로)가 주최한 아프리카 말라위 결식아동을 위한 제34회 OC교회연합 성

가합창제가 19일 오후6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윤우경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합창제는 나침반교회(지휘 류봉수 목사), 미주영광교회(지휘 황현정 집사), 감사한인교회(지휘 김명욱), 미주서부장교회(지휘 류지원), 남가주사랑의교회(지휘 서재필), 어바인온누리교회(지휘 송희경), 은혜한인교회(지휘 윤태중), 모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주최 제34회 연합성가제에서 참가자들이 연합합창으로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다(사진제공-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2014밀알의 밤 행사에서 한희준씨와 크리스토퍼 더플러가 찬양하고 있다

장애인 장학기금 마련 2014 밀알의 밤

Open Your Eyes 주제로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은 장애인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2014 밀알의 밤' 행사를 17일부터 19일까지 'Open Your Eyes'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18일 오후 7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린 둘째 날 행사는 밀알선교단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담임)가 환영의 말씀을 전했다으며, 밀알수어찬양단의 수어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어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11의 탑9에 올라 화제가 됐던 가수 한희준과 영혼을 울리는 작은 천사 자폐시각장애인 크리스토퍼 더플러의 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17일 ANC 온누리교회에서, 그리고 19일 메릴한인교회에서 각각 밀알의 밤 행사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KSC 푸드뱅크 행사에 총2,224명 참여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KSC, 소장 캐서린문)는 지난 9월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푸드뱅크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웃들에게 야채와 과일 등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푸드뱅크에 참여한 자들은 총 2,224명이며 한인교 인종 그리고 히스패닉 등 다양한 민족이 참여해 52,397lbs(파운드)의 식료품을 받아갔으며 KSC에서는 20여명의 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KSC는 앞으로도 계속 푸드뱅크

행사를 갖는다. ▲문의: (213) 739-7888 (기사제공: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



KSC주최 푸드뱅크 행사가 시온성결교회에서 열렸다



LA기쁨의교회 주최 2014 새생명축제에서 찬양사역자 안성진 트리니티뮤직 대표가 찬양하고 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2014 LA기쁨의교회 새생명축제

LA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는 2014 새생명축제를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8일과 19일에 개최했다. 18일 오후7시에 열린 첫날 행사는 찬양사역자 안성진(트리니티뮤직 대표) 씨가 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과 '나의 길 갈다가도'를 불렀다. 안성진 대표는 "하나님께서 이번 축제를 통해 많은 은혜주시길 소원한다"고 운을 뗐 후 "믿음은 하나님에 주셔야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경숙 성도가 간증했으며 이희문 목사가 '영생의 선물'(롬 6:2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LA기쁨의교회는 지난 2009년 9월 6일 한인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설립됐다. ▲문의: (323)788-4131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제4회 성인 분노조절세미나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 3727 W.6th Street, Suite 320) 주최 4회 성인 분노조절 세미나가 '내안의 화, 풀하게 다스리기'라는 주제로 25일(월) 오전9시부터 12시까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인 임상심리 전문가 박해영 카운슬러는 "가정이 붕괴되는 이유중 하나가 분노조절이 되지 않아서다. 이번 세미나는 가정폭력 예방차원으로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카운슬러는 "한국에서는 언어 및 육체 폭력을 당사자 간 함의로 끝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폭력은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된다"며 "다수의 한인들이 이 점을 인식하고 이번 워크샵을 통해 이민 사회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들을 습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감정 인식 및 표현하기, 인제 재구성, 스트레스 조절하기, 그리고 긍정적 대화법 배우기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강연을 진행한다. 워크샵 참가비는 교재비와 간식 포함 10달러로 책정됐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어 선착순 예약자 30명만 참석이 가능하다. ▲문의: (213)235-4852 박해영 카운슬러, (213)235-4842 제인김 카운슬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울타리선교회 감사예배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는 울타리선교회 소속자들과 함께 찬양으로 감사예배를 25일(토) 오전 10시30분 Ray of Light Missionary Baptist Church(4259 S. Western Ave.)에서 드린다. ▲문의: (213)819-3300, 595-7073

더텐트 홀리인 콘서트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는 파카랏 콘서트를 '홀리인 콘서트'라는 주제로 25일(토) 오후 7시30분 콘서트 장소인 가주영여학교 파카랏(639 S New Hampshire Ave)에서 갖는다. 이번 콘서트는 소프라노 김도희 테너 오영영, 찬양사역자 이천 목사, 김성아 전도사, CCM가수 최원영, CCM루키 양지아, 김용훈, 크리스틴 밴드 헤븐스 밴드, 하모니카 연주가 홍순호 장로, 건반연주자 전창환, 그리고 신동희 목사가 출연한다. ▲문의: (213)999-4909

KAM코랄 제9회 정기연주회

KAM(Korean American Master)코랄(지휘 이수정 집사) 제9회 정기연주회가 11월 2일(주) 저녁 7시 뉴라이프커뮤니티교회(18800 Norwalk Blvd. Artesia)에서 열린다. '푸른초장의집'을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로 마련된 이번 연주회는 Lexington junior high school choir가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한다. ▲문의: (310)909-9975, (714)514-9906

LA비전교회 건강한 홀로서기

LA비전교회(담임 김대준 목사)에서는 '건강한 홀로서기' 행사를 오는 11월 2일(일)부터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유호정 박사(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이며 이론, 별거, 사별한 가족을 위한 회복과정 등을 토론과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문의: (213)700-7190 홍수지 권사

군사관선교회 모임

군사관선교회(회장 김희창 목사)는 25일(토) 오전 11시 월드미션대학교 6층 예배실에서 10월 모임을 갖는다. 이번 모임의 설교는 정용갑 목사(유사, 풀러신학교 Ph. D) ▲문의: (213)219-0649

나성소망교회 새생명감사축제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욱 목사)는 새생명감사축제를 오는 26일(주)부터 11월 23일까지 매 주일 갖는다. ▲문의: (213)380-0258, 550-7477

2014년도 남가주 신학대학 연합 체육대회

2014년 남가주 신학대학 연합 체육대회가 10월 25일(토)에 은혜한인교회(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에서 9시부터 개최된다. 이날 대회에는 축구, 배구, 피구, 족구, 줄다리기, 릴레이 달리기 등의 종목으로 진행된다. ▲문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714)525-0088



한인가정상담소가 주최하는 제4회 성인 분노조절세미나에 대해 박해영 카운슬러가 설명하고 있다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p>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반야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2</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 오전 6:30(월-토) www.youngnak.com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p>	
<p>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32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주요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www.nachimbao.org</p>	<p>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요 회: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p>	<p>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Holywave-영어예배) 주일 4부예배: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wkcc.org</p>	<p>동문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요예배: 오전 6:3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egkpc.org</p>
<p>중앙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예배예배: 오전 8:00 2부 전통예배: 오전 9:30 3부 영성예배: 오전 11:00 4부 찬양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정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8: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집안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영성) 4부: 오전 1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토) Tel: (213)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p>	<p>베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영성) 성찬양예배: 오전 11:00 대리찬양예배: 오후 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happ.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2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p>남가주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 회: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월-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ido St., La Brea CA 90631</p>	<p>새천양교회 담임목사: 변윤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주요회: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newpraisechurch.org / ysyon@gmail.com Tel: (714)826-0100, Cell: (714)84-37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p>	<p>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7:30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 (818)952-2449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4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성)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전 11:00 www.ankang.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p>
<p>얼마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inut Ave., Irvine, CA 92604</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주 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p>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찬양)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주 일 회: 오전 11:00 토요찬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로 www.graceml.com Tel: (714)446-6200, Cell: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평)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성)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enceccg.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59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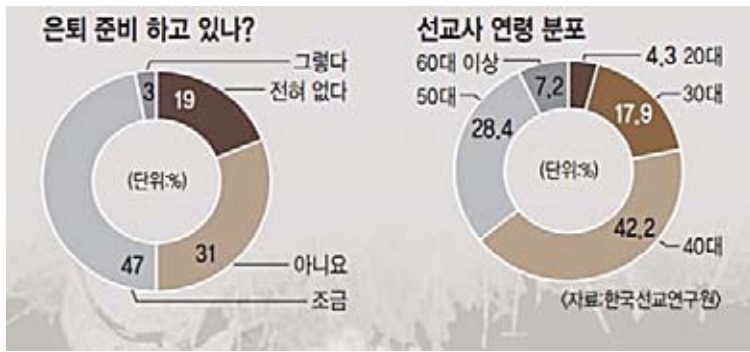
은퇴 선교사가 몰려온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개신교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다. 1990년 1645명에 불과했던 선교사는 지난해 2만5745명으로 늘었다. 폭발적 성장 뒤엔 원대한 소망이 있었다. 선교사들은 비전 하나만 붙잡고 생면부지의 외국 땅을 밟았다.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전부를 내주었다. 이제 그들이 돌아온다. 처진 어깨에 은빛 날개를 달아주자.

강성신(74) 선교사는 일본에서 20년간 사역하며 14년을 '도교 노숙자들의 천국'인 우에노 공원에서 급식과 이발 봉사 등으로 노숙자를 섬겼다. 현지 관공서와 주민들도 그의 헌신적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은퇴 뒤 강 선교사 부부의 삶은 드러내기 민망할 정도다. 거처를 찾다가 간신히 전복 순장에 자리 잡은 그는 공공근로 인부로 일주일에 사흘은 쓰레기를 주우며 도시정소를 하고 있다. 아내는 학교 식당에서 허드렛일로 생활비를 번다. 고혈압과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강 선교사는 은퇴 뒤의 삶이 이렇게 팍팍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부부가 한 달간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은 아들 내외가 주는 용돈을 합해 60만~70만원 정도다. 암 보험료와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그마저도 15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은퇴는 없다? = 선교의 최전방에서 깃발을 날리던 선교사들이 '은퇴 전선'에서는 낙오자로 전락하고 있다. 현장 선교사들 사이에선 '사후(死後)대책은 100%, 은퇴 대책은 0%'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선교지로 달려갔건만 은퇴 후 기다리는 것은 경제적 빈곤과 불안한 주거, 일자리 상실이다.

미국 해외선교연구원(OMSC) 김진봉 선교사가 발표한 '한국 선교사 은퇴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346명의 선교사에게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고 묻자 47%는 '조금', 31%는 '아니다', 19%는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제대로 은퇴 준비

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후배 선교사나 현지인에게 리더십을 넘기고 떠나는 게 선교사의 책임이라는 점에서도 여성을 무조건 선

선교사 은퇴 본격화, 10년 후엔 1만 명 이상 말로만 '선교 대국' 언급·후원 제도는 전무해

를 하고 있는 이는 3%에 불과했다. 은퇴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48%가 '돈이 없다', 22%가 '은퇴 준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13%가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는다' 등으로 답했다. 은퇴 후 한국에 살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5%가 '전혀 없다'고 답해 상당수 선교사들이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선교계는 아직 뾰족한 대안이 없다. '은퇴 없이 현지에 뼈를 묻는다'는 원칙만 되풀이된다. 이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2006년 개최한 한국선교지도자포럼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다. 포럼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가급적 은퇴 연령 없이 사역하다가 현지에 묻힌다'는 방안을 압도적인 의견으로 채택했다. 은퇴 목회자 언급·후원도 힘든 판국에 은퇴 선교사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시기상조란 이유에서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견 바람직해 보이지만 비현실적이다. 선교지의 여건이나 개인의 건강 등 다양한 이유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적

고지에서 보내라는 것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선교사들은 한국이 대체하는 48%가 '돈이 없다', 22%가 '은퇴 준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13%가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는다' 등으로 답했다.

◇은퇴자들 쏟아진다 =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선교 현황'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1만9798명(2012년 기준) 중 60대 이상은 7.2%다. 이 연령층은 2011년 4.9%, 2006년 3.8%에 불과했다. 현재 활동 중인 선교사들은 40~50대가 가장 많다. 국내 최대 선교사 파송 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교교회(GMS)에 따르면 총 2365명의 파송 선교사 중 40~49세가 950명(40.1%), 50~59세가 917명(38.7%)이다. 60대 이상은 299명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한다. 10년 후엔 60대 이상이 절반(51.3%)을 차지할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선교계에서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내에 은퇴하는 선교사(65세 기준)가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퇴 선교사들이 급증하는 이

유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파송된 선교사들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다. 이 무렵 해외여행 자유화와 한국교회 부흥의 결과로 선교사들이 붓물 터지듯 해외로 향했다. KWMA가 집계한 '선교사 파송 수 증가현황'에 따르면 선교사들은 96년 3372명에서 2003년 1만1614명으로 7년간 8000명 이상 증가했다.

OMF선교회 손창남 선교사는 "요즘 은퇴하는 선교사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며 "앞으로 은퇴자가 많아지면 대책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선교환경 변화에 주목해야 = 세계 선교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한 선교지에서 일생을 보내는 게 쉽지 않다. 선교사의 입·출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많아졌고 자연재해와 질병, 테러 등이 발생하면서 평생 선교지 개념도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경제의 악화, 한국교회의 정체 등으로 지속적인 후원 보장도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은 위축되고, 은퇴 후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은퇴 후에 대한 불안은 선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선교활동은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해 다른 직업을 갖거나 선교지에서 일군 재산을 사유화해 노후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주안대학원대 김종성 교수는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을 때 소명을 가졌다면 은퇴할 때도 소명이 있어야 한다"며 "은퇴 대책이 없다고 선교지에 계속 머물러 하기보다는 명예롭게 은퇴해 제2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뭉치면 제3의 대형교단 된다” 여의도순복음-기하성, 통합 위한 기도성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과 기하성(총회장 합동목사)은 16일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에서 '기하성 통합을 위한 기도성회'를 열고 교단 통합을 간구했다. 양 교단의 통합이 성사되면 교회 수 4400여개, 성도 수 180만 명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에 이은 제3의 대형교단이 된다.

기하성 총재인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설교에서 기하성이 성령운동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희망을 주는 교단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목사는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종교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극한 분열과 대립을 겪고 있다"면서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이때 기하성이 민족을 치유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선 강력한 성령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하성이 나눠져 있으면 별 불일 없는 군소교단에 불과하지만 통합하면 한국교회에서 장로교회 다음의 대형교단이 된다"면서 "마침 이영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을 맡고 있으니 기하성이 성령운동의 깃발을 들고 앞장 서면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사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양 교단은 그동안 '조용기 목사와 '재단법인 기하성'이라는 순복음 교단의 정통성 아래 꾸준히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날 행사에도 양 교단 총회장 박광수 박종선 정원희 박성배 엄기호 이태근 서안식 고종진 최길학 김봉준 목사 등 교단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통합 의지를 과시했다.

이영훈 총회장은 "기하성 교단은 한국에서 성령운동을 하는 교단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 교단으로 발돋움했다"면서 "양 교단은 같은 뿌리에서 나와 같은 역사, 같은 교리를 지니고 있으므로 하나 되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군 총회장도 "추진계선교회에 하나 되라고 하셨고 바울도 하나 됨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했다"면서 "자기 총회에선 양 교단이 기쁨으로 하나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953년 출범한 기하성은 미국 하나님의성회의 지원과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부흥으로 폭발적 성장을 거듭했지만 구성원 간 의견 차이로 1980년대부터 분열과 통합을 반복했다. 양 교단은 2011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서울 서대문구에 총회회관을 소유하고 있는 기하성 측의 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통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박원순 시장 동성에 합법 발언 충격 미언론 인터뷰 “한국 동성결혼 합법국 희망” 발언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자,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신문인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는 지난 12일 박 시장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아시아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시장이 "한국이 첫 번째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재 한국법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많은 동성커플이 함께 살고 있다"며 "국민 모두 행복추구권을 보장받는 만큼 한국 헌법도 동성결혼 권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한다"는 박 시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한국에선 개신교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해 (동성결혼 허용은) 정치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라며 "활동가들이 국민을 설득하면 정치인도 결국 따를 것"이라며 "이 변화 과정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평 부산대 교수는 "박 시장의 발언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성 행태로 보는 국민 대다수의 정서를 무시한 것"이라며 "일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서구사회는 동성가족에 입양된 아이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유럽등인권법원도 동성결혼은 인권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박 시장은 동성결혼을 인권문제로 오해하는 것 같다. 동성애는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주요 통로이므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대 라이즈컴코리아운동본부 이사장은 "박 시장의 발언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며 인구정책에 어긋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대권 잠재후보로 거론되는 박 시장의 정치적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재홍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사무총장은 "박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동성애자를 돕는 것 같지만 그들을 이용해 정치욕심을 채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은 갈렘선교회 대표도 "동성애자를 이용한 정치행위"라며 "기독교인들이 먼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박 시장이 직접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며 "아시아 첫 동성결혼에 합법화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한 것이지, 서울 시민의 의지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군선교 돌파구 '대대급 교회 활성화' 제14회 군선교 신학심포지엄

"안타깝게도 현재 군(軍) 내에서는 장병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은 한때 '선교의 황금어장'으로 일컬어졌지만 이제 그물이 너무나 낡고 상해 있습니다." 육군 제15사단 군총참모를 맡고 있는 김동연 목사는 7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 목사)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개최한 '제14회 군 선교 신학심포지

엄'에서 "군종목사로서 참으로 민망하다"며 군 선교의 어려움을 이같이 밝혔다.

김 목사는 군 선교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대대급 교회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창끝 부대'로 불리는 대대급 교회의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장병들이 21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실제 공간이 대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군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사

랑하는 아들들 군에 보낸 부모의 심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대급 교회의 활성화를 통해 군 선교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통해 군에 기여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대급 교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군 선교 교역자들의 보임 안정, 부대 지휘관의 신앙 전례와 의지와 세심한 관심, 신실한 군종병과 기독 장병의 헌신, 지친 장병 돌봐주기, 기독 간부 및 군인 가족들의 봉사 권장, 신병교육대 세례자의 추적 관리 및 양육, 대대 지휘부와의 좋은 유대관계 형성, 구성원 간 네트워크 등을 제시했다. 예배 후 성경암송대회, 설교말씀을 활용한 빙고게임 등

다양한 복음(선교)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이종윤(서울교회 원로) 목사는 기조강연에서 "군대사회의 특수목회라는 이유로 젊은이가 좋아하고 편하게 따를 수 있는 변두리식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린다면 병영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군선교연합회는 이날 제11회 군선교 신학연구논문발표도 담당자 시상식을 갖고 신중훈 전도사와 안남기 군종목사, 이금순 목사를 수상자로 선정해 상금과 상장을 전달했다.

이 알려지자 총신대 신대원 여원우회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급기야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는 지난달 22일 광주 남구 봉선로 겨자씨교회에서 열린 예정합동 제9회 총회장 임우에서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총신대 신학과 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의 총신대 신대원 입학에 제한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운영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규정 경을 결정했다. 김중준 운영이사장은 "총신대가 여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신학에 꿈을 갖고 있는 여성은 누구나 총신대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신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는 "하나님께서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면서 "그러나 총신대 운영이사회가 여학생의 신대원 지원을 제한키로 했다는 보도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잘못된 결정을 철회한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양성평등을 위해 예정합동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총신대 신대원 모회화 석사과정에는 1179명이 재학 중이며 이중 여학생은 121명이다. 총신신학원은 370명 가운데 31명이 여성이다.

'여학생 입학 차단' 사실상 철회 총신대 신대원 긴급이사회 '노회추천'으로 변경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여성 입학에 차단하는 결정을 사실상 철회했다.

운영이사회 관계자는 "지난 7일 긴급 임원회를 갖고 차기 이사회에서 '목회학 석사과정 입학자는 노회추천 목사후보생으로 한다'는 규정을 '목회학 석사과정 입학자는 노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규정 변경 건이 운영이사회를 통과하

면 여학생은 당회장·노회장 추천서만 제출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영이사회는 지난달 18일 '여학생 때문에 남성 목회후보생들이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노회에서 추천한 목사후보생'으로 입학자격을 제한했다. 예정합동은 여성목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회 추천 목사후보생은 전원이 남성이다.

국민일보의 보도로 이 같은 사실

"구원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사실을 믿는 것"

한국기독교학술원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주제 세미나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윤 목사)은 20일 서울 대학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종교개혁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한국교회가 교리와 예배, 생활에서 개혁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구원론의 본질과 다양성'을 주제

로 발표한 한일장신대 배경식 교수는 "지금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인위적인 구원론을 만들어 세력을 비밀조직처럼 확장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기독교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 정서에도 위해를 기칠 수 있기에 한국교회는 구원의 참의미

가 담긴 구원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기독교의 구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죄를 대신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 계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삶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며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서 영생으로, 죄의 책무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짐을 털어주

는 역할로, 미래에 대해 불안을 겪는 이에게는 확신과 위로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예배 개혁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 함신대 이승구 교수는 "예배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혼을 속여 경배하는 것"이라며 "예배를 복을 얻거나 벌을 피하고자 하는 근거로 드리는 것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예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

가 있다"며 "예를 들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춤'과 같은 요소를 예배에 도입하는 것은 강단을 무대로, 선포를 여흥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예배에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읽고, 듣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그 내용에 따라 예배를 드리며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발표한 평택대 안명준 교

수는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이 성장주의의 몰락주의에 빠져 대형교회를 선호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권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올바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하며 목회자들은 권위를 버리고, 평신도들이 은사에 맞게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교의 창 (18)

(고) 방지일 목사님을 추모하며

제임스송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한국교회의 산 증인이자 '영원한 현역'이란 별명을 가진 10월 10일 소천하였다. 향년 103세였다. 고인은 지난 10월1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유가족과 교계를 대표하는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한국기독교회장'으로 천국환송예배가 드려졌다. 고 방지일 목사는 1911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고 방효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분은 선천의 신성중학교와 평양숭실대에서 공부한 후 평양장로회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재학 당시 평양대부흥운동의 중심지이자 평선주 목사님께서 사무하시던 장대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다. 1937년 신학교 졸업과 함께 목사안수를 받은 후 중국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 고인은 중국 산둥성에서 1957

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면 그것은 내 직업이요, 영업이요, 사업이다. 그저 골방에 들어가 주시는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것이요 메시지는 "오직 성령으로" 이것뿐이다.

제1기 사역: 청년시절에 선교사로서 삶(1938-1957)

고인은 1937년 예장 총회의 가결에 의해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이미 부친 되신 방효원 목사가 1916년 선교사로 중국 산둥성에 파송을 받아 선교활동 중 이기에 이를 잘 돕기 위해서였다. 당시에는 일제 강점기였다. 일본은 그들이 운영하는 어용단체인 대동아선교회에 가입할 것을 권했으나 거절하고 순수 복음활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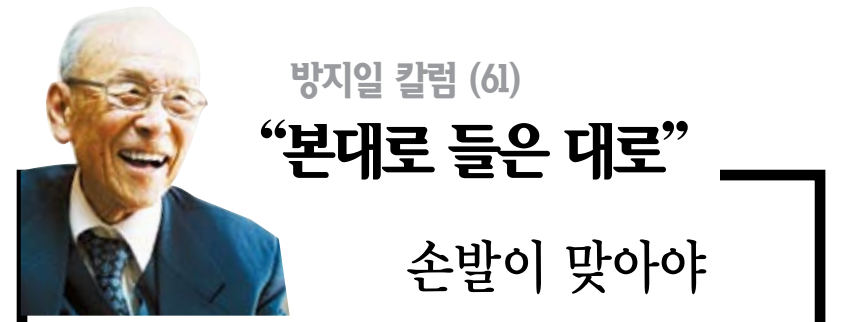
다는 것이다. 또한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라고 하였다. 열심히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현미경의 렌즈가 맑아지면서 평소엔 보이지 않던 작은 죄도 찾아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서 목회는 어떤 기술보다는 용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경케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변제를 드린 것처럼 교인들의 명수대로 하나하나 제단을 쌓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한 영혼을 소홀히 한 채 오로지 양적 성장을 앞세우는 오늘 다수의 교회에 대한 따끔한 충고이다. 더욱이 주변의 작은 교회를 배려하지 않고 특별한 설교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대형교회를 질타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침을 경히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맺는 말

사람은 오래 살았다는 것보다 어떻게 살았는가 더 중요하다. 고인은 2013년 국가조찬기도회 때 박 대통령께서 방 목사님께 의자가 앉혀 설교하시기를 권했으나 그 자리에서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곧은 신앙인이었다. 고인은 중국이 공산화 되며 모든 선교사들이 철수함에도 홀로 남아 중국영혼을 살렸던 선교사였다. 고인은 교회부흥을 위해 특별한 설교나 이벤트보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목회자였다. 고인은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대에 나의 김밥보다 하나님의 김밥



방지일 칼럼 (6)
"본대로 들은 대로"
손발이 맞아야

우리의 걷는 것을 보면 오른발을 내딛을 때 왼손이, 왼발을 내딛을 때 오른손이 나간다. 사람의 행법이 이러하다 함을 본다. 손을 내저으면서 발을 움직이고 그 좌우가 엇갈려 나간다. 그렇게 못하게 오른손 오른발 왼손 왼발이 같이 나가면서 걷는 이는 정상이 아니다. 내 중학시절에 체조시간에는 보행법부터 연습시켰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가' 하고 걷게 하는 일이었다. 아주 인성적이었다. 뜨거운 가슴은 열이 나게 한다는 표현처럼 열은 가슴에게 나음을 알렸다. 흔히 근자에는 소외당한 이들, 노약자, 억울함 당한 이들이 이 사회에서 발발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보도하여 때로 있어 특자가 되는 흐름과 사설이 들려들 때 참 고맙다함을 느낀다. 우리 교계에서도 때로 단언이 이런 말이 없으면 설교가 아닌 양 쪽이나 자주 그런 사회사업 위주의 고취가 많이 들어진다. 발표하는 글에도 그러하다. 열핏 보면 소위 운동권인 듯 한 감마저 든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이라고 보여진다.

진실하게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사로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신앙인으로서 옆에 어린 소녀 가장이 동생을 데리고 고생스럽게 산다. 그를 자연히 돌보게 된다. 내 친구는 그런 가정을 자기 아들과 때로 조사하여 이들에게 밤중이나 새벽에 누구도 모르게 쌀이나 육류를 사서 밖에서는 얼른 보이지 않게 노끈으로 매어 아침에 그 집에서 일어나면 보게 갔다 주곤 했다. 또 최귀남 최봉석 목사님은 내 평양시절에 우리 기도회에 그 할아버지도 참석하곤 했다. 우리 다 학생, 고학생이라 일하면서 공부할 때도 이 할아버지 교회도 녀치지 못할 때 쌀 떨어지는 것을 알고 학생으로서 매달 그의 생활비조로 드리기도 했다.

어떤 때 최 목사님은 이런 강증도 했다. 아침 새벽기도회 가려고 문을 여니 문이 안 열리더라고. 부엌으로 해서 나와 보니 쌀 한 가마니가 문 앞에 있더라고. 이런 운정이 있는 것이다. 신앙인은 사도 행전 때부터 서로 나누는 정이 있다. 나는 이런 친구의 체험도 들었다. 겨울날 늦게 돌아오는데 추워서 떠는 이가 있어 자기 외투를 벗어주고 왔다. 와서 생각하니 이 밤에 그가 어디서 잘까 내가 어저 집에 데리고 오지 않았던가, 그래 다시 나갔더니 그 자리에 없더라고 후회하기도 하였다. 내가 독일 갔을 때 우리 선교사 이형립 목사 집에 하루 우했다. 그는 역전 혹은 공학중심으로 전도한다. 그분은 필리핀 사람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는 그만 외국에 나와 갈 곳이 없이 된 신세라 우선 집으로 데려왔다. 그 사모님은 이런 나그네를 때때로 받는다. 이런 시카고대회에 왔기에 아직도 사모님 골탕을 자시게 하시오 농담을 하기도 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내가 본 글, 내가 들은 말 하는 이, 글 쓰는 이의 삶에, 손발이 안 맞다는 느낌이 때문이다. 언제나 불우한 사람을 사하는 외면한다고 치탄하면서 그런 말하는 자신이 그 말대로 웃을 벗어주는가, 나는 이번 시카고 선교대회에 강사로 오신 선명회 회장 이윤구 박사과 같이 한 방에 있었다. 이제는 선명회가 외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보내게 됨을 들었다. 금년도 150억의 예산이란다. 북한에도 말가루니 양식을 보낸다. 북한의 굶주림을 아는 자기는 하루에 한 끼는 굶으신다 함을 들었다. 같이 있으면서 그런 연락을 매일 주고받는데 구호금이 처음 8백만이었다는 팩스가 오더니 다음날 1억이 되었다는 보고였다. 그 자신이 실천하면서 모금을 하신다. 그 손발이 맞게 사신다.

오늘 말로만 꼭 누구를 공격만하는 식이, 그 손발이 맞지 않는 일에서 뿐임은 지양해야 한다. 야고보 장로는 벌써 이를 지적한 바 있다. 나는 여기 덧붙여서 단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런 손발 맞지 않는 말은 그만 두고 속죄 구령의 복음이 바로 전해지면 곁에서 굶는 사람이 있지 않게 된다. 한국선명회는 에티오피아에 한국전선 봉사자를 만들고 그들을 돕고 있다. 캄보디아에 농구 골키퍼 7천개를 갖다주니 그렇게 처음 받는 선물이라 하더라.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자신은 잘 있으면서 누구를 원망하는 말 같은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 단에서는 복음이 전달되는 단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1997년, 4권)

죽는 날까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뉴스는 게 두렵지, 닳아 없어지는 건 두렵지 않다.(방지일 목사)

년 추방되기까지 21년 간 선교를 했다. 한국에 돌아온 뒤 서울 영등포교회 담임목사를 지냈고 1979년 원로목사에 추대됐다. 1972년 예장총합 총회장, 1976년 기독교보 사장,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격동의 한국 근, 현 대사를 몸소 체험하신 고인은 순양원, 한경직, 박윤선 목사와 함께 한국 기독교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 금번 장례를 통해 한국교회가 아쉬워하는 것은 고인께서 단지 교회의 어른이었다거나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분 인생 자체가 한국기독교사의 한 부분이며 무엇보다 깨끗한 인격과 청빈한 삶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다. 아직도 그분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우리의 귀전을 때리는 것 같다.

전반하셨다. 고인은 또한 그 곳에서 다섯 번의 정변으로 인해 순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중국인 뿐 아니라 한인교도 난민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았다.

1949년 공산당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자 본국 총회에서도 철수 지시를 내리고 미국영사관에서도 마지막 철수하는 배에 탑승할 것을 간곡히 권유했다. 그러나 방 목사는 거절했다. 그는 서양선교사들이 추방된 어려운 공산당 치하에서도 홀로 남아 중국인 신자들 곁에서 저들의 신앙을 돌보며 어려움을 함께 하였다. 결국 1957년 중국 당국은 그를 북한으로 추방하려고 하였는데 서방언론에 그가 중국에 남은 마지막 기독교 선교사라고 알려져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분이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선교사였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제3기 사역: 노년시절에 지도자로서 삶(1980-2014)

고인은 1979년 은퇴한 뒤부터 1년 가운데 절반 정도는 국내·외 집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복음 전파에 앞장섰다. 설교 요청이 들어오면 노구를 이끌고 부르는 곳 어디든 말씀을 전하러 가셨다. 고인은 현재의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많으셨다. "예수님은 교단 만들러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러 오신 교주가 아니다. 죽으러 오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1937년 내가 목사안수를 받을 때만 해도 한국장로교는 하나였다. 1959년 당시 예장이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될 때 우체국에서 사방으로 전화해 말리며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다.

나아가 "믿음이란 투항인데, 아직도 우리는 내 주관과 경험으로 무장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무장을 완전히 해제할 때 비로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고인은 이렇게 주의 일에 나를 개입시키지 말고 제거할 것을 요구하셨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가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가?" 말이 들릴 정도로 교회 안에 경쟁과 반목과 분열이 치열한 이때에 우리 교회는 고인의 의

을 의식하며 교회일치를 바라는 지도자였다. 고인은 거실 액자에 "격산덕해(格山德海): 인격을 산 같이, 덕을 바다같이 쌓으라" 의미처럼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고인은 탐욕에 물들지 않고 청빈과 내려놓음의 자세로 후배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셨다. 고인은 "젊어서 죽을지언정 늙어서 죽지 않겠다"라는 좌우명처럼 천수를 다하시기까지 주님을 위해 일하다 가셨다.

이제 우리는 한 사표로서 보석 같이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선교사요, 목자요, 지도자이신 방 목사님을 환송하면서 새롭게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디에서부터 갱신을 해야 하는가?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초창기들의 선구자 위상에서 퇴락하여 사회의 격정거리로 전락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흑암의 세력이 공격하며 인본주의가 판치는 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냉철히 성찰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무너진 성을 세우듯 그리스도인들이 방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갔던 분을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일한국과 세계선교를 바라보며 함께 전진해가야 한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선지자적 외침

"예배당은 교실이 아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강연장도 아니고 재미있게 듣자는 역사 이야기장도 아니다. 개신교의 본령은 사회공헌이나 복지사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온 힘을 쏟으라는 것이다. 구원 역사에 내 몫은 없다. 내가 할 일은 그 지배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 몫을 기울 때 하나님의 성역이 오손될 뿐이

제2기 사역: 장년시절에 목회자로서 삶(1958-1979)

고인은 서울 영등포교회를 담임하며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였다. 그분의 목회핵심은 사회봉사에 치우친 복음보다는 기도와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순수한 복음 그 자체였다. 그 분은 말씀이 소외되고 감성에 치우치는 부흥을 경계했다. 진정한 부흥은 오직 말씀을 통해 이뤄져야 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벌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벨엔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원대학: 오후 1:30 종교학대학: 오전 10시, (영): 오전 11시 유진: 유진: 오후 10:00 Tel: (215)425-0288, Fax: (508)435-5467 2 Main St., Hkinton, MA 01748	샬롯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634-0900 / 0989(켄싱턴)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일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KoreanChurch.com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www.kpcd.org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영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53)536-8675,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새벽기도: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173 St. Charles Pl.,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대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말만) 새벽예배: 새벽 5:30(월-토) Tel: (253)535-8207, 531-8424 Fax: (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7시 수 일 예 배: 오후 8시 새 버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rc.org	템프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말/영)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kpcpac.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예배: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한-영)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0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선교 편지

일본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사30:5).

한해가 가고 또 어느덧 한해가 다해갑니다. 옛그제 선교지를 떠난 것 같은데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부모, 고향과 친척을 멀리하고 아이들을 뒤로하고 달려온 한길입니다.

그리움에 배개를 적신 날이 여러 날이었으며, 아이들이 엄마를 그리워했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방망이 쳐지지만 벅스메스의 안소가 벅개를 메고 우는 새끼소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앞을 향해 갔던 것처럼 감동없는 사람이 되어 지나온 한길입니다.

30년이나 나의 시간, 인생을 투자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크리스천의 숫자통계가 똑같습니다. "그곳에도 나의 선지자가 있었노라"라는 말씀만이 위안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열리고 우리는 기쁨의 눈물로 주님을 맞겠지요. 그동안 기도와 물질, 그리고 기도편지 없어도 인내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우리를 건디게 했고 여러 유혹에도 이기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쓰나미 이후에 지진과 방사능의 공포가 생활 속에 깊이 스트레소고 있으며 봄에는 심한 꽃가루 알레르기, 여름에는 좁은 집에 습한 무더위, 겨울에는 난방시설의 미비, 그나마 가을이 가장 건디기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름은 어린이 영어캠프 등으로 눈코 뜰새없이 바쁜 시간들이 되곤 했는데 금년에는 한사람의 손님도 없고 단기선교

팀도 없이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도울 손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미국인 세분이 자원봉사 해주셔서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영어캠프를 통해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조총련계학교를 위해서는 제임스 선교사부부와 테리최 선교사가 계속해서 무료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목회자 성경연구를 위해 장소제공과 식사로 섬겼으며 재일한국인선교사회를 위해 금년 1년간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내년 4월 6일-4월10일 있을 세계 GMS 사모선교대회를 통해 사모들이 힘을 내고 위로받는 시간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2주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마다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가족이 하나임을 확인해 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해주는 밥이 몹시 그리웠던 낭 맛있게 먹어 주었는데 계속 바깥 밥을 사먹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고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걱정도 납니다.

남은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며 아름다운 바톤을 넘기도록 기도하며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교회의 영적싸움에서 승리 이기도록
2. 새로운 테리선교사(조총련학교사역), 최혜영선교사(음악담당)의 정착과 적응을 위해
3. 교회의 재정과 부흥을 위해
4. 교사들의 영성과 건강을 위해
5. 나이드신분들이 교회계단을 힘들어 하시는데 대책이 마련되도록.
6. 떨어져 사는 아이들의 결혼과 장례를 위해

김신호 문옥남 선교사
이메일: shinhokim@hotmail.com

이슬람권을 위한 목요기도운동

(요3:16, 17)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 이슬람권 성도들과 현지인 복음사역, 선교사를 위해

(요16:33) "여인이 어찌 그 젓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금홀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49:15).

- 이슬람권에서 핍박과 위협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소망을 부여주소서. 세상에서 잊혀지고 버림받은 자 같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형제요 지체인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새 힘과 위로를 얻게 주소서!

- 나이제리아 피랍된 소녀 중 네 명이 탈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과 가족들 위에 위로와 치유의 능력을 부여주소서, 남은 소녀들의 영혼육을 보호해 주소서!

- 최근 IS(이슬람국가)가 세력을 더욱 확장하면서 이라크와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더 극심한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크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 얻게 주소서!

-이란, 알제리,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에서 현지인들을 통한 복음전파가 더욱 불일 듯이 일어나서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번져가게 하소서. 현지교회와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강하게 불붙여 주소서!

- 이슬람권 국가에 다양한 방법으로 선

교의 문을 열어 주시고,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촌 등 복음이 필요한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준비된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 주소서.

- 선교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슬람권 선교사의 부르심을 능히 감당할 용기와 힘을 주소서.

- 어둠의 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땅에서 T국 기도의 집이 빛과 진리와 생명을 퍼뜨리는 예배와 기도의 센터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집 이전 문제를 친히 주관해 주소서.

2. 무슬림들, 이슬람지도자들, 국가들을 위해

(에스겔 18:23)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 아무리 극악한 자라도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IS 및 모든 이슬람 무장단체 대원들, 17억 무슬림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살게 하여 주소서!

- 사람의 생명과 타종교인에 대한 IS의 만행이 그치게 하시고, 배후에 역사하는 살인과 어둠의 세력이 묶이게 하소서.

- 무슬림으로 태어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이슬람 교육만을 받고 자라는 무슬림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 과격이슬람무장단체의 최고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소서! IS(이슬람국가)의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 알카에다의 아이만 알자와히리, 하마스의 이스마일 하니예, 탈레반의 몰라 무함마드 오마르가 변화되게 하소서!

- 이슬람권에서 하나님을 지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아동과 여성 인권이 존중받게 하소서. 종교를 빙자한 인권유린과 범죄가

끊어지게 하소서!

3. 이슬람학 저지와 중보기도운동 위해

(벧전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최근 자진하여 이슬람 무장세력에 가담하거나 외국인 무슬림과 결혼함으로 마스크를 통해 알려졌던 이들이 곤경에 처한 후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호받고 구출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와 거울이 되게 하소서.

-전세계 젊은이들의 지각을 열어주소서 이슬람 급진사상에 미혹되어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않게 하소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 테러를 조장, 선동하고 무장대원을 모집하려는 모든 미혹과 계획이 묶이게 하소서.

- 각국 정부가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각 나라와 국제사회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게 하소서.

- 한국 정부와 위정자들이 유럽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지혜롭고 합당한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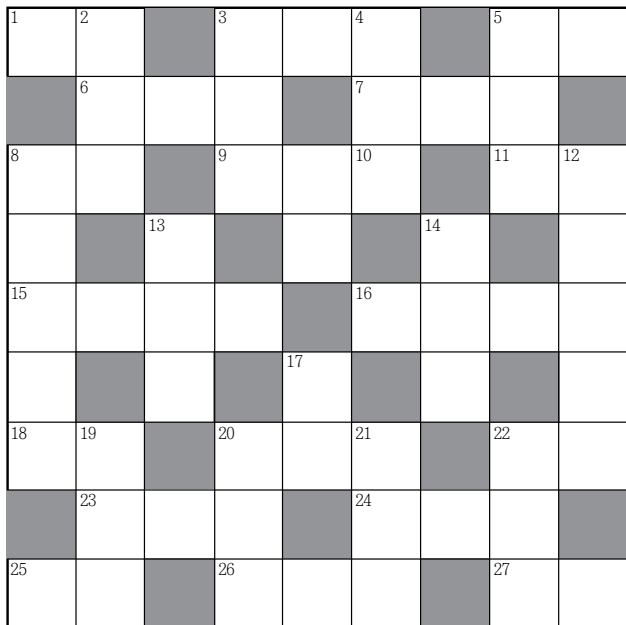
- 한국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게 하소서. 이슬람의 세력을 분별하고 막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와 선교를 감당하게 하소서.

- 한국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슬람의 세력을 분별하고 막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와 선교를 감당하게 하소서.

이메일: loveyou316@daum.net

십자말 • Cross Word (57)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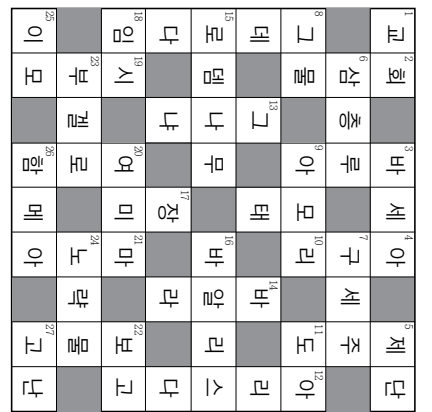
1.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는 집(마16:18).
3. 요아다의 아버지(느3:6).
5.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만든 단(왕상1:50).
6. 3층의 다락(행20:9).
7.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
8. 새나 물고기를 잡는 기구(출27:4).
9. 그 민족을 가리켜 키는 백향목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다고 했다(암2:9).
11. 레위 족속 그핫의 자손 엘리엘의 아버지(대상6:34).
15. 시내산 근처에 많은 공과에 속한 관목(왕상19:5).
16. 그대라 때의 암문왕(렘40:14).
18. 일정하지 아니한 시간(겔33:22).
20. 읍이 환란 후에 얻은 첫째 딸인데 전국 중에 아라비아의 여자(욥42:14).
22. 재물을 쌓아두는 창고(신28:12).
23. 허모계네와 함께 바울을 배반한 자(딤후1:15).
24. 때를 지어 약탈한 물건(삿5:30).
25. 어머니의 자매(레18:13).
26. 예루살렘 북벽, 성역의 북면 하나넬 망대의 동쪽에 있던 망대(느3:1).

27. 괴로움과 어려움, 고초(창31:42).

<세로 푸는 열쇠>

2. 석회, 세사, 황토를 한데 섞은 물건(사41:25).
3. 솔로몬의 신하 여호사밧의 아버지(왕상4:17).
4. 입의 속칭(속5:8).
5. 한국에서 제일 큰 섬(지리).
8. 유대 낮은 땅에 있던 14읍 중의 하나(수15:36).
10. 어머니의 태 안(민12:12).
12. 데살로니가인으로, 바울과 함께 로마에 동행했다(행27:2).
13. 레위인의 족장으로 음악대장(대상26:29).
14. 두 성읍이 있으니 한 성은 유다 북편에 있는데 일명 기타 여아립이다(대상13:6).
17. 꽃 중의 꽃(?) 가시가 많음.
19. 남편의 부모.
20. 열가나의 아버지(삼상1:1).
21. 삼손의 아버지(삿13:13).
22. 보배로운 물건을 쌓아 둔 창고(왕하20:13).

십자말 정답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봄 성지순례 일정>

-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 2015. 2.16~2.26 - 이스라엘+요르단3개국(10박11일) \$2,699
- 2015. 3. 2~3. 9 - 터키+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 2015. 3. 2~3.12 - 터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 2015. 3. 2~3.14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외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동독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순례 및 정탐,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건너)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물문교는 과연 기독교인가?

물문교에 접해 신앙의 혼돈이 생기신분
물문교에 관해 알고원하시는 분

상담 및 소그룹 클래스, 세미나

문의 정 일 국 목사

- 전 화: 714-833-2345
- 이메일: miranjung7@gmail.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0. 사모의 행복 가꾸기- 사모의 사역 가꾸기(2)

2014년 1월 22-24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제 19기 CMF 사모교실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가보는 인도 땅을 향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염려와 위압감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에 대한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이번에도 혼자서 가야하는 길이었기에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이었기에 호기심과 함께 불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모가 행복한 여인인 이유를 전할 때 사모들의 잠자던 정체성은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올 때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뜨겁게 부르며 도착한 인도 땅이었는데 어느 덧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명감은 다 식어져 버리고 현실에 적응하기에 급급하게 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 모두는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은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신발을 벗은 채 다시금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받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은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신발을 벗은 채 다시금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받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각각의 부르심의 사연은 달라도... 비전과 은사는 달라도... 한 가지 공통분모는 우리는 사모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모의 고귀한 정체성을 발견한 우리는 사명 또한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동안 신고 다녔던 고집의 신발, 내 맘대로 주를 위해 사역한다고 돌아다녔던 고정관념의 구두,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구두, 이리 저리 핑계되며 계름 부렸던 계름의 구두, 남과 쉽게 비교하고 쉽게 좌절하는 절망의 구두 등 모두 벗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마치고 난 후에 결단한 사모들의 고백을 들

각각 부르심의 사연 달라도, 비전과 은사는 달라도, 공통분모 사모 이름 때문에 하나로 식어진 가슴에 불 지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결과를 알게 되니 다음 사역을 향한 열정에 다시금 준비하게 됩니다.

3년전 영국에서 만난 어느 선교사님이 10년간 닦아 놓은 인도사역의 길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22시간의 비행시간동안을 즐겁게 누리며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였습니다. 기도하고 바랐던 대로 모든 직원들은 잠을 자러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 검사도 없었고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쓰게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인도에서 사역하고 온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은 정보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공항부터가 살벌해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등 마귀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무시무시하다는 등 많은 정보로 인해 겁에 질렸는데 이상하리만큼이나 다른 곳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사가 45장 2절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뿔뿔을 쳐서 부수며 쇠뿔장을 쥐고 네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카톡으로 미리 인도 에이레네 방(사모들을 위한 평화의 방)을 만들어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신 것은 신은 은혜였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사모들이었으나 마음은 이미 다 열려 있었기에 준비모임에서부터 주시는 은혜는 컸습니다. 2박3일 동안 사모들의 갈급한 마음은 그들의 눈망울에서 이미 알 수 있었고 강의 시간마다 내리시는 소나비 같은 은혜는 그들의 메마른 심령들을 적셔 주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3일간 하는 동안 우리는 매우 친숙해졌습니다.

첫째시간에 있었던 사모의 사명가꾸기 시간에는 사모의 정체성과 사명의 귀중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사

어본다면, "이전 일들이 힘들고 지쳐 하지 말아야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 첫 시간인 사모의 사명가꾸기 시간을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 결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삼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더 기울이게 되었습니다"(C사모).

"이번 사모교실의 주제인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을 통해서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음껏 나누고 듣고 울고 웃고 기도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M사모).

"희미해져가는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지쳐서 영육 간에 힘들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내 신을 벗어라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음성을 듣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나에게 지금 필요한 시간들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신발을 벗는 동안 나의 부족한 부분, 깨뜨려야 하는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으며 다시 주님을 깊게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O사모).

"답답했던 문제와 영적인 회복이 되었으며 남편을 더 이해하고 자제히 아는 시간이 되어서 앞으로의 시간들이 기대가 됩니다"(P사모).

"선교지 특성상 사모보다는 남편 선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라 남편의 영육간 건강상태를 잘 체크해서 열심을 내야 할 때, 힘이 필요할 때를 잘 분별해서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T사모).

"얼마나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깨닫고 난 후 나의 자존감 세우기를 굳게 결단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T사모).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응답하시는 하나님(시20:1-3)

시편 20편은 "합심기도, 또는 중보적 기도의 시"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은 때때로 전쟁을 앞두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시를 써서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으며 백성들은 사랑하는 다윗 왕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본 시편은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믿음으로 합심기도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

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할 때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18:19-20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시20:1-2)

성도가 어려울 때는 무조건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대적의 공격이 임박할 때 어려운 일이 앞에 있을 때 성도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기도제목이 있을 때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높고 드신다고 했는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즉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모두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28장을 보시면 지팡이 하나 들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를 가든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또한 지팡이 같은 야곱의 새 타작기와 같이 훌륭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 성소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시20:2-3)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성소에서 시온에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성소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십니다. 본문에서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신다고 했는데(Help,

support) 다른 곳에서 도움이 있고 다른 곳에서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성도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지원하여 드리는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목 나의 모든 계획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시20:3-4)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믿음의 소제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 믿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변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을 헌신에 다짐하며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제와 변제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모든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처음부터 계속 기도하며 하는 일은 결국은 반드시 잘되게 되었습니다. 출17:8-17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겼습니다. 싸움의 승패가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 잘되는 길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시20:5-6)

기도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승리를 가져다줍니다.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를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인하여 개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될 때 가정이 잘될 때 교회가 잘될 때 그 승리의 기쁨이 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입니다. 목사님이 잘된 것이 나의 축복이요 성도들이 잘된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오늘 서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잘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내가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매력적입니다. 진정 서로 기도하며 서로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쳐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시20:6-8)

성도의 합심기도는 결국 구체적인 응답의 체현을 얻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서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말과 병거를 의지한 사람

들은 앞뒤려져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간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굽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워서 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힘차게 일어나고 똑바로 서게 됩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제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12-940-7000, Fax: (02)12-436-5770 서울시 금정구 망우동 870-1(131-231)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2-490-7000, Fax: (02)2-49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79, Fax: (062)522-4834 500-170 경교역사리 북구 관양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흥인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267(로마)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02)12-440-9000, Fax: (02)1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월요일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예배: 오전 6:30 Tel: (02)1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시 양천구 목동3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seongsil.or.kr Tel: (02)2-998-0988, Fax: 9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3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5: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 (02)1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313-26호	수영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사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의왕로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1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9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71 29(삼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2)12-786-6579, 새벽(02)1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제1기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0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1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송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2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0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12-482-3536, Fax: (02)1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1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 운동 (1)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서론

중국의 선교 전략과 활동을 논의하는 것은 2가지 이유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첫 번째, 중국은 엄청난 큰 땅과 많은 인구 그리고 복잡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현대 중국 선교에 대한 모순적인 증언들이 모두 옳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가정교회들에 대한 박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증언이다. 예를 들어서, 베이징의 대형 가정교회(소우왕교회)는 2011년 4월에 중국정부에 의해서 폐쇄되었고 교회 건물은 몰수되었다. 담임목사였던 진 티안밍과 다른 목회자들은 모두 가택 연금되었다. 반면에 다른 지역의 가정교회들과 신학교들 특히 중국 남부에는 제한적인 종교적 자유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위해 공개적으로 모일 수 있다.

중국교회가 물질주의에 몰들기 전에 앞으로 10-20년 동안 700개의 신학교를 위해서 수백 명의 중국인 신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중국의 신학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개혁주의 교회들 중에서도 기독교 교육을 특별히 강조하는 한국 장로교회는 중국의 지도자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중국의 모든 개신교 교회들이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라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지만 미래에는 여러 교단들이 세워질 것이다. 한국의 개혁주의 교단들은 중국교회의 지도자 훈련과 외국인 선교 동원이라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I. 중국 교회 역사

A. 5번의 기독교 선교의 시도

기의 두 시기 사이에 네스토리우스와 교회는 눈에 띄게 사라졌으며 거의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 Kenneth S. Latourette 박사는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사라진 세 가지의 이유를 제시한다.

- 1)중국에서 기독교는 외국 민족의 종교로 인식되었다.
- 2)당시에 중국은 특별히 외국인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할 만한 필요가 없는 시기였다.
- 3)네스토리우스와 선교사들은 고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2. 로마카톨릭 수사들(13세기)

교황 이노센트 4세는 중국에 수사들을 보내서 몽골의 황제를 살피고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플라노 카르피니의 요한은 1245년 3월에 고을의 리움을 떠났다. 그는 "몽골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몽골인은 비록 많

은 우상을 가지고 있고 해, 달, 불, 물과 같은 자연을 숭배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일신교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1247년 3월에 칼피니가 교황에게 돌아왔고, 1253년에 플라레밍의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수도사인 루브록 윌리엄이 몽골 위구르와 중국 서부인 타타르로 떠났다.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네스토리우스파 사제들을 보았다.

몽골인들은 강력한 이슬람 세력이 몽골인들이 유럽과 접촉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과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윌리엄은 몽골의 황제 만구와 황비가 교회에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1294년에 이탈리아의 수사 몬테카비노 요한과 그의 네 명의 동료들은 캄발루크(북경)에 가서 2개의 교회를 세우고 6,00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마르코 폴로는 24년간 (1271-1295년)의 긴 여행을 통하여 중국을 방문하여서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을 보았다. 그리고 "중국 남부에는 망기라고 부르는 700,000가구가 이 법(그리스도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계속)

현 아시아 최다 기독교인 보유 중국, 10-20년래 신학자 양성해야 7세기 네리우스파가 첫 역사적 선교 시작후 5번의 주요 선교시도

두 번째, 외국인 교회 지도자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중국교회를 논할 때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인 시진핑의 체제 아래서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혔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최근에 중국에서 추방되었다. 이론적으로 중국에는 외국인 선교사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선교사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에는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중국교회의 중요성을 지적하기 일한다. 그 이유는 앞으로 중국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교회의 급격한 성장으로 중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살고 있다. 중국교회의 역할은 특히 이슬람 세계의 복음화에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의 주요 논지는 현대 중국교회의 핵심 사안이 중국의 성장하는 교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지도자 교육이다.

중국교회의 역사에서 19세기 초반에서부터 시작된 2번의 개신교 선교를 포함하여서 5번의 주요한 기독교 선교가 시도되었다.

1. 네스토리우스파 선교(7세기)

역사적으로 5세기에서 6세기에 네스토리우스파가 중국에 접근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들이 있다. 예를 들면, 셀레우시스-크레시포네의 대주교인 알치우스(411-415)와 네스토리우스파의 총대주교인 실라스(505-520)는 중국에 수도좌를 세웠다. 하지만 고고학적인 첫 번째 발견은 1625년 당나라의 수도인 시안에 있는 네스토리우스파 비석이다. 비석에는 631년에서 681년까지 중국에 네스토리우스파 선교가 있었음을 역사적으로 보여준다. 비석은 시리아인 선교사, 아로켄이 635년 중국에 왔으며 당나라의 황제인 태종(627-649)에 의해서 받아 들였으며 중국에 경교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도교를 신봉하는 우종 황제는 845년에 기독교인과 불교도들을 박해하였다.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두 번째 전래는 13세기에 몽골의 침략기 중에 이루어졌다. 9세기 중엽과 13세

인/터/뷰

Renua Medical 강익호 장로

96% 정확성 가진 의료 진료기구로 의료선교 업그레이드

"좋은 의료 진료기구로 많은 분들이 건강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Renua Medical의 강익호 장로는 최첨단 의료진료 기구인 RM 3-D Body Analysis System(RBAS)은 의료선교를 위해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 기구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의료선교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장로인 강익호 장로가 이 시스템에 관여하게 된 것은 은퇴 후 하나님의 일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저는 항공계통의 시스템 매니저로 일을 했었습니다. 항공관련 일을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남은 생애를 보람된 일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이왕할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를 통해 이 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이 일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RBAS를 생산하는 Renua Medical 본사를 방문한 강익호 장로는 이 시스템의 장점은 노트북 하나와 외장형 하드디스크 2대 크기로 콤팩트해서 이동할 수 있고 사용법도 복잡하지 않아 조금만 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사용가능하다는 말에 이 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FDA기준으로 96%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 신뢰도도 매우 높아 의료선교를 실시하는 교회나 선교회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의료선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던 의료선교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의료선교에 대한 현황들에 대해 접하면서 의료선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RBAS가 의료선교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됩니다."

그는 특히 제3국같이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제대로 된 의료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곳에는 RBAS의 활용가치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의료선교를 가보면 많은 경우 청진기 하나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한의사 한두 명과 함께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지에 선교를 가게 될 때 만나는 환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알 길이 없어 도움을 주고 싶어도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니다. 그래서 의료선교에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이 선교현장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알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현장은 아니지만 몇몇 교회에 이 시스템으로 진료행사를 가졌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RBAS가 생산이 된지는 5년 정도 되었다고 밝힌 강 장로는 이 시스템이 그동안 대중화가 되지 못한 이유는 의사들에게만 판매가 돼왔기 때문이다.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판매



가 허용이 된지는 이제 2년 정도 됐다.

RBAS의 장점은 종합검진기능이다. 피검사 없이 당뇨는 물론, 혈당, 콜레스테롤, 전립선, 스트레스 지수까지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다. 다만 혈압체크에 들어가는 시간만 추가로 2-3분 소요된다. 시스템에 앉아서 의사나 시스템 운용기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주면 되고, 진료시간은 10분, 수속부터 검진 그리고 진료결과를 받고 몸 상태가 어떤지 설명까지 듣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정도다. 즉 숨을 오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진결과를 통해 체질변화를 알아볼 수도 있으며, 과거 수술여부까지도 알 수 있다.

강 장로는 "이 시스템은 건강검진을 위해서도 유용하지만 질병예방차원에서도 유용한 도구입니다. 보통 건강한 분은 1년에 한번 정기검진을 하고 있으며 6개월에 한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의료검진을 하는데 매우 좋은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암에 대한 예측도 하게 되는데, 5년 후에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도 해줍니다. 또한 당뇨 및 콜레스테롤 등 검사에서 해당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의 건강상태가 이상이 있을 경우 약을 바꾸라는 메시지도 나오게 됩니다."

강 장로는 교회와 선교회가 건강진료 혹은 의료선교를 위해 이 시스템 보유를 원할 경우 4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굳이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의료선교나 교회의료진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스템 렌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RBAS는 전문가가 있어야 건강진료를 할 수 있지만, 시스템은 테크티션이 다루어도 되는데, Renua Medical에서 마련한 소정의 테크티션 교육과 정만 이수하면 누구나 RBAS를 다룰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강 장로는 RM 3-D Body Analysis System이 많이 보급돼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949)295-1700

(박준호 기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45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45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2013년 11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주안예교회(담임 최혁 목사)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818)368-9883

▶ 등록비: \$20(필수)

▶ 회비: \$120이상(성도 1인당 1불씩)

제출서류

입후보자들은 제출서류를 2014년 10월 25일(토) 오후 5시까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주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 문의: 총무 이주철사관 (408)480-317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추천 및 신청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격

- 1)회장: 목회경력 10년 이상, 남가주 목회 5년 이상된 담임목회자 (제 15조)
- 2)수석부회장: 차기 회기에 회장 자격이 있는 담임목회자 (제 16조 2항)
- 3)부회장: 목회경력 5년 이상된 담임목회자 (제 15조)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제출 서류

- 1)이력서 2)교단추천서 3)목사안수증명서 4)교회주보 5)발전기금(캐시어체크)
- *후보자 본회 발전기금
· 회장 \$5,000 · 수석부회장 \$3,000
· 부회장 \$1,000

● 공천위원회 모임

- ▶ 일시: 2014년 10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의실
- 1)공천위원:교회 회장단 추천6명, 이사회 추천 6명, 교단 및 지역연합회 추천 12명

● 교단 및 지역연합회 공천위원회 구성

- ▶ 일시: 2014년 10월 27일(월) 오전 11시
▶ 장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2)교단 및 지역연합회 추천 공천위원 제출서류(10월 23일까지)

- ①교단장 및 지역연합회회장 추천 공천위원 명단 2명
- ②전화번호 및 이메일

■ 회장:박효우 목사 ■ 수석부회장:최혁 목사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735-3000 Fax: (323)735-3111 E-mail:office@theckc.org www.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org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 in Southern California